

2008.03

www.airforce.mil.kr Vol.357

공군

Monthly Magazine



기획특집

최고의 항공우주인 양성하는 공군 교육정책 2008

기획탐방

첫 여학생 입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성 장

이시영

바다가 가까워지자 어린 강물은 엄마 손을 더욱 꼭 그려진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거대한 파도의 뱃속으로 뛰어드는 꿈을 꾸다 엄마 손을 아득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내 아들이. 이제부터는 크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단다. 엄마 강물은 새벽 강에 시린 몸을 한번 뒤흔치고는 오리처럼 곧 순한 머리를 돌려 반짝이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산골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 이시영 : 「성장」, 『은빛 호각』,
창비, 2003

* 이시영 : 1949년 전남 구례 출생. 196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조,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 당선되어 등단. 시집 『만월』, 『바람 속으로』, 『길은 멀다 친구여』, 『무늬』, 『아르갈의 향기』, 『바다 호수』 등이 있다.

〈시 해설〉

어린 강물이 엄마 강물의 손을 놓친 게 아니라 엄마 강물이 살며 시 손을 놓았겠지요. 바다로 가야 하므로, 크고 다른 삶을 살 때가 되었으므로, 떠나보낸 거겠지요. “잘 가거라 내 아들이.” 엄마 강물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며 아팠겠지요. 시린 몸을 한번 뒤흔치고는 은어들의 길을 따라 조용히 되돌아왔겠지요. 삼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교생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바다로 나가는 어린 강물들이 저마다 반짝이는 물살이기를 바랍니다.

- 시인 도종환



※ 표지설명 : 항공과학교 첫 신입생 여학생들과 하사로 임관하는 37기 졸업생들이 입학과 졸업을 축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표지 : 김윤해(사진작가)

공군 March 2008 No.357

발행일자 | 2008년 3월 6일(통권 제357호)

발행인 | 공군참모총장

발행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정훈공보처

02-506-6295, 042-552-6295

기획·편집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중위 손재연, 일병 이호용

디자인·인쇄 | 공군교재창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CONTENTS

2008.03

www.airforce.mil.kr Vol.357

〈기획특집〉 최고의 항공우주인 양성하는 공군 교육정책 2008

04 **1** 교육정책 _ 공군 교육훈련의 개혁 방향

08 **2** 기획탐방 _ 민주시민·항공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14 **3** 60기 생도맞이, 공군사관학교

1 _ 사진으로 보는 공군사관학교 60기

2 _ 가입교 훈련·비행실습훈련을 지켜본 소설가 권현숙의 시선

18 창공클럽 시선 _ 새벽 활주로에서

24 World-Wide Vision _ 후방의 전사들

28 참모총장 스케치

30 공군은 지금

32 여기는 다이만 _ 훈(魂)이 담긴 항공기 정비가 다이만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34 INTERVIEW _ 공군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단법인「공군발전협회」

36 Bird Alert! _ 위장의 명수 멧비둘기

39 3월의 공군 역사

40 e-Sports 〈ACE〉 _ 중용의 도를 지키는 명품토스, 박대만

42 장병 카운슬러 1 _ 방포사 기본권 상담관의 편지

44 장병 카운슬러 2 _ 제11전투비행단의 '동료' 상담자들

46 이미도의 Hollywood English _ 그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원가 특별한 게 있다

48 생각하는 그림 _ 황금석을 던져버린 청년

50 정홍래의 음악산책 _ 서양음악, 통째로 살펴보기 **2**

52 권순정의 포토에세이 _ 길

54 PREVIEW _ 3월의 문화행사

56 책마을 _ 세종처럼

기획특집 : 공군 교육정책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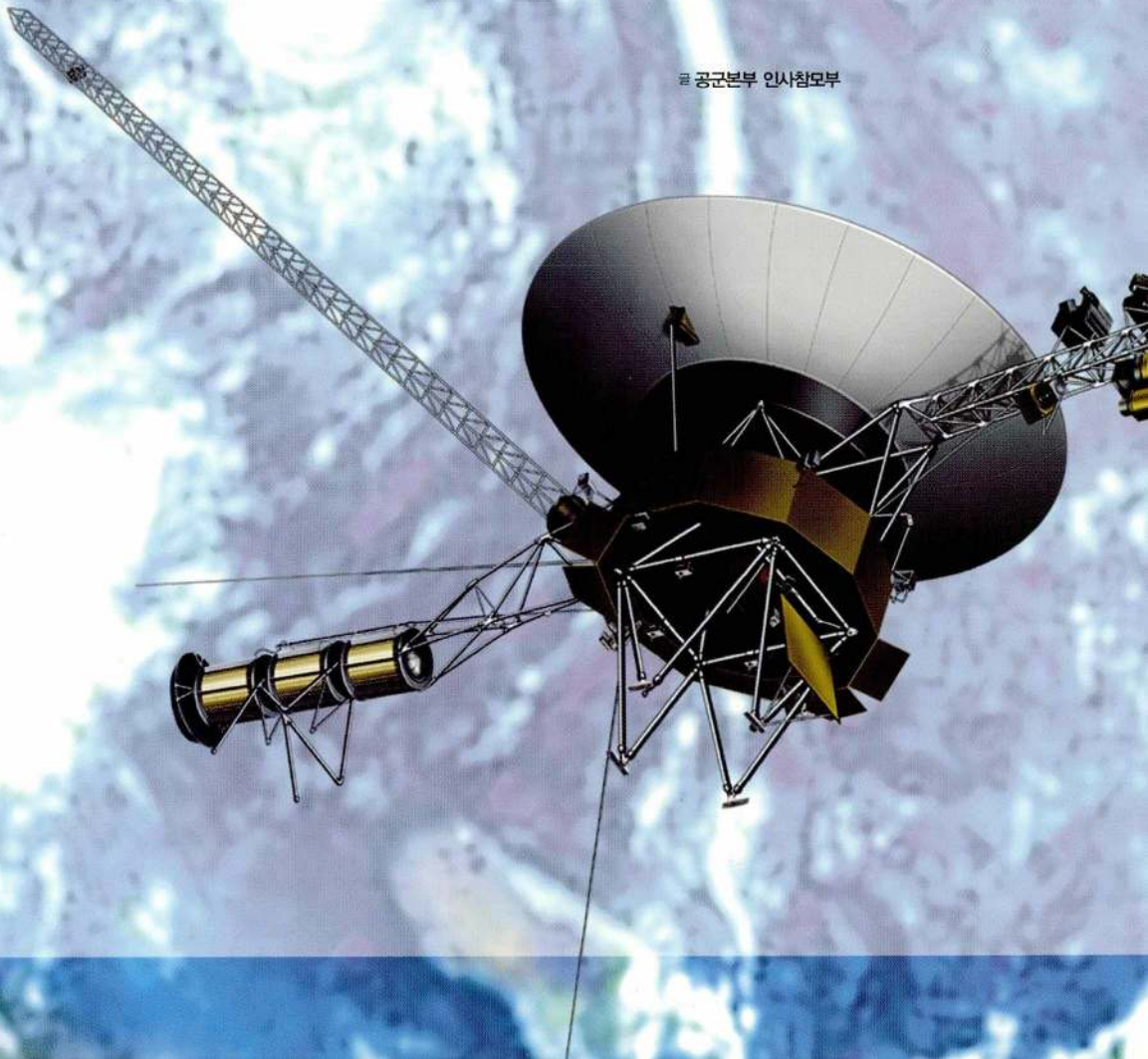
- 1 교육정책 _ 공군 교육훈련의 개혁 방향
- 2 기획탐방 _ 첫 여학생 입교를 맞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서
- 3 60기 생도맞이, 공군사관학교
 - 1. 60번째 생도를 맞은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와 도약
 - 2. 가입교 훈련·비행실습훈련을 지켜본 소설가 권현숙의 시선

1 교육정책

공군 교육훈련의 개혁 방향

- 역량기반의 공군 학습포털 구축을 중심으로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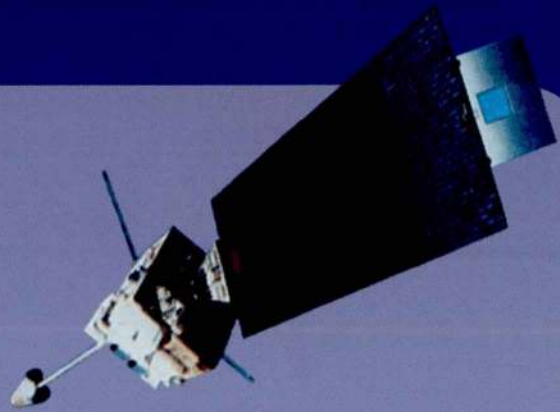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생명체의 진화가 외부 환경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듯이 우리 사회의 조직도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킬 때만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인터넷 확산에 따른 지식·정보의 범람 등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무기체계 분야뿐이 아니다. 교육훈련 분야도 '지식정보화사회'를 거쳐 '창조와 영감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방법 등 전 영역에 걸쳐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해 공군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믿음직한 공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ainbow Project」를 통해 건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참모총장의 강한 개혁의지에 힘입어 전 분야별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었다. 이에 우리 교육 분야에서도 "그간 우리는 얼마나 공군 조직발전에 기여해 왔는가?"자문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공군의 비전을 선점하는 역할수행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인식을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 교육훈련의 지향점인 '공군 5대 인재상'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경쟁력 있는 공군 건설을 위한 「Soaring Eagle Project」를 일관성 있게 가속화하여 '공군 인재상' 구현을 위한 최상의 교육훈련체계를 찾아내어 구축하는 일이다.

이 글의 목적은 급속하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교육훈련이 공군 비전 달성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한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역량기반 공군 학습포털 구축계획」을 소개함으로써 전 공군인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육개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



II. 공군 교육훈련의 개혁 방향

역량기반의 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

역량이란 일을 잘 하는 사람, 즉 업무 고성과자가 보다 자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식(K)과 기능(S), 태도(A) 등의 통합체를 말한다. 또한 역량기반 교육훈련이란 장병 개인 또는 집단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충족하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시행함을 의미한다.

어떤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전통적인 접근방법은 교관 또는 관리계층의 경험에 기반하여 배우면 좋을 것 같은(nice to know)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나, 역량기반의 접근은 부과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need to know)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역량기반접근의 효과성은 2차대전 중 미 공군이 일본의 아와타 제철공장을 폭격하는데 B-29 47소터를 투입하여 간신히 성공한 반면, 걸프전에서는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밀타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한 F-117 한 소터로 성공한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역량은 조직의 가치나 비전 등에서 추출하는 공통역량,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직무역량, 계급이나 직책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리더십 역량으로 구분된다. 또한 상위 10%의 우수한 직무수행자들이 갖춘 각종 역량의 수준을 표준역량으로 삼아 장병 개개인의 역량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역량기반의 접근을 통해 공군의 교육훈련은 그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개개인의 역량을 진단하여 해당 계급과 특기의 표준역량과 비교하

여 갭(gap)을 찾아내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특기·계급별로 역량을 진단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특정 직책에 보임자원을 선발할 때 요구역량을 갖춘 개인을 선발할 수 있고, 자기계발 측면에서는 자신의 경력개발을 위해 희망하는 직책에 요구되는 역량과 현 자신의 역량 차이를 찾아내어 보임 전에 충족시키는 노력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교수학습의 효율성(teaching-learning efficiency) 증진

전통적인 교육훈련의 모습은 대상자가 모두 한 곳에 모여 같은 방식(lockstep)의 학습을 하는 것으로서 학습성과, 시간, 비용 등의 효율성 측면이 취약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컴퓨터보조교수(CAI), 컴퓨터활용교육훈련(CBT), 웹기반교육(WBI) 등이 등장하였으며 최근에는 e-Learning으로 개념적인 통합이 이루어져 시공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e-Learning은 소집교육에 비해 직무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습여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 운영상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교육방법이 전통적인 소집교육과 e-Learning을 혼합한 Blended Learning이다. Blended Learning은 교육내용을 특성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고,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의 교육성과를 위해 혼합하여 운영하는 교육방법이다. 예를 들어 '문제해결' 과목의 경우 문제해결의 일반적인 개념이나 절차소개는 온라인 강의로 학습하고 가상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실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공군대학의 고급지휘관참모특별과정(CSC/ECI)을 제외한 공군의 보수교육과정은 모두 소집교육으로 진행된다. 소집교육은 효과성이 높은 반면 교육대상병력의 소집으로 인한 비용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기회비용, 각 학교의 수용시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막대하므로 각급 보수교육과정을 Blended Learning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부수병력 확보가 어려워 교육으로 인해 실무부대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의 활성화

교육훈련에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교육은 학



[그림 1] 공군 학습포털의 구성

교에서 교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형식적인 교육으로서 학교에서 교관에 의해 진행되는 교육이 주도적인 기능을 담당하며 중요시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직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인 교육도 중요시되어야 한다. 특히 지식과 정보가 범람하는 현시대에는 교육기관 중심의 시켜주는 교육 외에도 학습자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찾아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현장의 간부들에 의한 코칭과 멘토링이 중요한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학교교육뿐 아니라 직무현장 등 조직의 모든 영역에서 학습을 중요시하고 제반 직무수행 중 반성적인 고찰(reflective review)을 통해 얻은 지식을 축적하여 공유하고자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상시 학습체제를 근간으로 형성되는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으로 개념화되었다. 즉, 부대(부서)별 특기별로 학습커뮤니티를 만들어 직무와 관련하여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직무현장에서의 학습활동이 적극 장려되는 조직문화가 필요해진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서는 단위조직별 학습활동 커뮤니티 개설을 장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과 함께 "교육 없이 보임 없다"는 대원칙으로 교육과 인사의 연계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상 속의 학습이 자연스럽게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습조직의 활성화는 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습활동을 병행하는 액션러닝의 형태로도 추진될 수 있으며, 정제된 직무경험은 지식관리체계(KMS)로 통합하여 명시지로 전환됨으로써 전 공군인이 공유하게 되는 지식의 재생산 체계를 만들어 내게 될 것이다.

III. 역량기반의 공군 학습포털 구축계획

공군 학습포털(Air Force Learning Portal)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통합된 하나의 웹기반 체계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량진단체계(CDS), 학습관리체계(LMS), 학습콘텐츠관리체계(LCMS), 지식관리체계(KMS) 등의 하위 체계로 구성되며 양성교육부터 특기/보수교육, 직무교육, 자기계발, 학습커뮤니티 지원에 이르기까지 공군의 제반 형식, 비형식적 학습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학습포털은 역량기반체계이므로

공군의 모든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도록 해 주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요구되는 역량을 제시하고 진단하여 부족한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전 장병과 군무원들이 상시 학습하는 조직을 만듦으로써 공군의 학습조직을 구현하게 해 줄 것이다. 이로써 그동안 단편적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워질되었던 공군의 교육체계가 누더기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공군 학습포털(Air Force Learning Portal)은 '학습조직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공군본부 교육처에서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본 학습포털은 금년도 역량체계구축에 관련된 기초연구와 교육사, 공대 등의 시범적인 blended learning 운영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2013년부터는 2차 사업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수행지원 제공'을 목표로 e-HRD 체계로 발전될 것이며 위성통신과 Wibro 기반의 전자수행지원체계(EPSS) 등이 주요 구성요소가 될 전망이다.

IV. 맺는 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훈련활동은 조직이 원하는 성과(performance)로 연결되어야 한다. 역량기반의 교육훈련체계가 「공군 학습포털」을 통해 구현되면 공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훈련활동은 공군과 개인이 원하는 'win-win'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Soaring Eagle Project」의 화두인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연합·합동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군 육성"이라는 공군 비전의 달성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분야가 외부변화에 따라 혹은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후 반응적(reactive)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래 변화를 예견하여 치고 나가는 선적응적(proactive) 자세로 역할 및 기능을 전환해 나갈 것이다.

미래 조직의 운명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로 판가름된다. 공군의 교육은 그러한 인재양성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아갈 것이다. ^{AF}



2 기획탐방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민주시민 · 항공전문인력 양성의 요람

- 첫 여학생 입교를 맞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아서 -

☞ 오인태 | 시인, 교육학 박사 사진 김윤해 | 사진작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 15명 입학

사령부교회를 지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학교본부로 가는 길에 산뜻한 건물 하나가 성큼 눈에 들어온다. 언뜻 보기에도 금방 도색을 끝낸 새 건물이다. 안내를 맡은 정 중위의 말이 “저 건물이 바로 여학생전용 생활관” 이란다. 들뜬 목소리에 풋풋한 생기가 느껴진다. 마치 잘 정돈된 길가의 가로수와 교사(校舍)를 에워싼 나무마다 이제 막 돌기 시작하는 봄기운처럼, 만나는 이마다 단연 화제는 올해 처음 입학한 ‘15명의 여학생’이다. 전체 150명 입학정원에 15명이면 열 명에 한 명 꼴이다. 곧 이 열다섯 꽃송이를 맞을 설렘과 기대로 오랜 ‘금녀의 집’이 벌써부터 봄날 잔칫집처럼 부산하고 환하다. 사람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으랴. 그것도 열다섯 나이의.

신입생 입학전형을 끝내고, 졸업·임관식을 눈앞에 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찾은 것은 이월의 끝자락, 마침 봄방학 중이라 월간 『공군』 취재에 선뜻 합류할 수 있었다. 내가 창공클럽회원인데다 공군교육사령부 인근의 진주에 거

주하는 현직교사라 학교취재의 필자로 적합하다고 집필섭외를 해온 모양이다. 마침 동행한 김민영 양에게 먼저 던지시 말을 건네 본다. 김양은 대구 평리중학교에서 이곳 항공과학고를 지원하여 첫 여학생수석을 차지한 학생이다.

- 이 학교를 어떻게 알고 지원하게 되었나?

= 사촌오빠가 항공과학고 3학년에 다니고 있어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 군인이 되고 싶어 이 학교를 지원한 건가?

= 졸업하고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여군이 되고 싶다.

-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 그 실력이면 얼마든지 다른 특목고나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갈 수 있었을 텐데...

= 부모님도 흔쾌히 허락해주셨다. 직접 와서 보니 이 학교를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든다.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과 학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



좌측 : 자랑스럽게 이름표를 들어보이고 있는 신입생 김예은 양
우측 : 선배들의 명단을 둘러보는 항공과학고 37기 졸업생들



수업 중 발표하고 있는 재학생

초롱초롱한 눈매와 야무진 입술로 거침없이 소신을 밝히는 모습에서 '항공코리아'와 대한민국 공군의 푸른 미래가 보인다.

'하늘의 별 따기' 꿈이 아닌 현실

"가르친다는 것은 다만 희망을 말하는 것이요, 배운다는 것은 성실함을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학교본부 건물 2층 계단을 오르는 벽면에 붙어 있는 프랑스 시인 아라공의 경구가 어느 학교의 분위기와 그다지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단지, 부서별로 교무실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 일반학교의 그것에 비해 특이하고,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교실의 대형 전동스크린이 이공계 대학의 강의실을 연상시킨다. 그만큼 학교시설이 현대화되고, 교육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터이다. 항공과학고는 항공기계(학년별 3개 반), 통신전자(학년별 2개 반), 항공관제(학년별 1개 반) 등 3개 과로 전공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 학교는 21세기 항공우주시대 핵심기술요원인 정예기술부사관 양성을 목표로 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군인양성교

육기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식 인가를 받은 이른바 '전문계 고등학교'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일반정규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공군 기술부사관으로 임관된다. 그렇다고 이런 외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거나 일반대학의 이공계 관련학과에 진학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의 모든 학비와 생활비의 국고지원은 물론 일정한 급여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데다 다양하고 안정된 진로까지 보장되어 있으니 갈수록 인기가 치솟고 있다. 요즘처럼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말이다. 그래서 입시경쟁률이 2007년 올해의 경우 남학생은 20.7 대 1, 여학생은 51.1 대 1에 이르렀다. 이 정도면 전국 어느 특목고에 견주어도 놀라운 수준이다. 항공과학고에 입학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가 단지 꿈이 아닌 실제 현실인 셈이다.

"선생님, 애인 있으십니까?" "물론이지." "언제 결혼하십니까?" "응, 너희들 여름휴가(방학)하고 집에 가있을 때 몰래 하려고." "에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어느 고등학교 교실 풍경과 다름없이 사제시간의 정담이 한창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끼어들 틈을 노린다. 가만 보니 오히려 여타 학교의 학생과 교사 사이보다 더 격의와 허물이 없다. 아마도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대개 선후배 사이인 데다, 현역 교관들이라 학생들과는 형과 아우쯤 되는 근소한 나이 차이일 것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하지만 교사나 학생들이나 하나같이 반듯한 용모와 언행에다 정복까지 입고 있어서 군인으로서의 절제와 단정함이 느껴진다. 그 절제된 자유 속으로 슬그머니 끼어들어 한 학생에게 묻는다.

- 학교생활에 만족하나?

= 만족한다.

- 특히 어떤 점이 만족스러운가?

= 월급도 받고(함께 웃음), 무엇보다 안정적인 진로가 보장되어서 좋다.

민주시민, 전문성 갖춘 군인 양성 병행

학교장 인터뷰를 하기 전에 잠시 대기한 회의실 벽면에 걸린 역대 교장들의 사진이 눈길을 끈다. 대수를 거듭하여 최근에 이를수록 표정이 한결 부드럽고 밝아 보인다. 아마도 이 학교 교육이 변화해온 징표일 터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장

실에서 만난 이근재 교장(대령)은 근엄한 군인의 모습보다는 자상한 아버지나 인자한 교육자의 풍모를 지녔다. 옆에서 누군가 “우리 교장님은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교육학자 이시기도 하다”고 귀띔해 준다.

- 학교의 성격을 교육이념, 교육목표와 관련해서 소개해 달라.
- = 우리 항공과학고는 공군이 필요로 하는 항공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이지만,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일반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이념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수준 높은 전문지식을 구비한 군인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이념을 아울러 갖고 있다. 한 마디로 고교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항공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기술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보면 될 것이다.
-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신입생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그렇다. 40여 년 간 ‘금녀의 집’으로 알려진 항공과학고에 최초로 여학생 15명이 입학한다는 사실은 공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확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정비실습에 열중하고 있는 전문과 교관과 학생들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 군의 현대화·첨단화의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일이다.

- 항공과학고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생이면서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교육을 동시에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두 가지 역할이 상충될 수도 있어 학생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항공과학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같다.

= 실제로 ‘항공과학고는 군인양성교육기관이라 엄격한 군사교육을 펼칠 것’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학생지도기본원칙은 학생을 군인이 아닌 청소년학생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바른 심성과 준법정신 함양을 목표로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항공과학고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편이어서 공군 가족과 관계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발달과 자체 홍보강화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해를 거듭할수록 입학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항공과학고는 교육과학기술부 학력인정 법정고등학교로서 과목별 중등정교사 자격을 가진 인력을 교관(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영·수 등 일반과목을 가르치는 보통과 교관은 전원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맡고 있으며, 항공기체·기관·통신전자·항공관제 등 특화된 교육내용을 가르치는 전문과 교관은 정교사 자격소지자, 또는 전문적 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분은 교육공무원법의



교장 이근재 대령



1. 신축 여학생 생활관에서 2. 항공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여자 신입생들
좌측부터 여자 수석 입학생 김민영 양, 강수민 양, 조아란 양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라 현역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다.

교장실을 나와 다시 회의실에서 일반교관인 김진만 중위, 정비실습담당 교관인 박소남 상사, 훈육관인 정성현 중위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겸한 인터뷰를 가졌다.

- 항공과학고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욕구와 성취도는 어느 수준인가. 일반대학이나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에 대비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우리 학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열의는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다. 이곳에 오기 전 일선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적이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다가와 보충수업을 해달라고 하는 학생이 없었다. 그런데 이곳에 오고난 후 학생들의 끈질긴 요청으로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교사들이 자율적인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거기다가 입학할 때부터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라 학업성취도도 매우 높다.

- 항공과학고의 전문학과수업은 최고를 자부한다고 들었다. 항공기 기체를 가장 가까이서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내용과 환경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얻고 있나?

= 항공기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튼튼한 기초이론과 각 항공기에 대한 계통이론, 그리고 실질적인 정비기술 등이 그것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공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한다. 우리 학생들은 정비실에 있는 항공기들을 매일 보고 만지고 분해·조립하면서 항공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기술, 그리고 사랑을 키우고 있다.

-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어 훈육관으로서 학생 생활지도에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 남녀교제와 안전, 그리고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공군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일반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 규정 등을 참고하여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그리고 여학생전용 생활관을 신축하고 여학생전담 훈육관 보직을 두어 전문적인 지도와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교관으로서, 훈육관으로서 저마다 맡은 역할에 대한 소신과 열정, 그리고 자부심들이 대단하다. 이들에게는 능히 고등교육으로서의 '민주시민 양성' 전문교육으로서의 '항공전



학교 강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졸업생들

문 인력 양성', 그리고 군인교육으로서의 '투철한 군인정신'을 가진 부사관 양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도 남을 만한 지혜와 기개가 느껴진다. 게다가 항공과학고는 교사 한 사람이 단지 열 명의 학생을 지도할 만큼 교사비율이 높다고 하니 이 정도면 얼마든지 밀도 높은 수업과 전문화된 개별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서른 명이 넘는, 그것도 코흘리개 초등학생들과 씨름을 해야 하는, 같은 교사의 처지로서 마냥 부럽기만 하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또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항공과학고의 교관, 학생 모두가 더없이 행복한 사람들임에 분명하다. 덩달아 행복감에 한껏 젖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운 좋게도 졸업생 앞둔 학생 몇 명을 만났다. 그 중 한 명을 이끌어 말을 건넨다는 게 마침 이번에 차석 졸업으로 공군참모총장상을 받게 되는 최성민군이다.

- 진로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 4년제 위탁교육생 선발이 되어서 홍익대 정보통신공학과에 진학하게 된다.

-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늦기 전에 공부하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공부라도 좋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자신의 능력을 사적인 데보다는 국가를 위해 쓰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은 국가가 지원하고 키워준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반듯한 생각이 대견스럽다. 교관들이나 학생들이나 하나같이 이 학교 교조(校鳥)인 해동청의 형형한 눈빛과 늠름한 기상을 지녔다. 대한민국 미래항공역량의 산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뒤로한 채 공군교육사령부 기지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거의 한나절이 꼬박 걸린 긴 취재에도 사뭇 가볍다.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비성탑 위로 큰 날개의 새 한 마리, 힘차게 날아오른다. ㉠

오인태/경남 함양 출생. '91년 「녹두꽃」으로 등단했다. 「그곳인들 바람 불지 않겠나, 「혼자 먹는 밥, 「등뒤의 사랑, 「아버지의 집」 등의 시집을 펴냈다. 경상대학교 박사과정에서 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교육학박사),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진주교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사)한국작가회의 이사, 경남작가회의 회장. 창공클럽회원.



사진으로 보는 공군사관학교 60기

3 60기 생도맞이 공군사관학교 1



60번째 생도를 맞은 공군사관학교의 歷史와 跳躍

자료정리 공군사관학교 정훈공보실

광복을 맞은 후 우리나라의 항공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선각자들의 노력으로 1949년 김포별관에서 첫 사관생도 입교를 맞았던 공군사관학교가 2008년 3월, 제60기 생도를 맞이하였다.

연락기 20대로 출범한 우리 공군이 변변한 전투기 없이 한국전쟁을 치르는 동안, 사관학교는 서울, 대구, 제주, 진해 등으로 기지를 이전하면서 불비한 여건 하에 사관생도를 교육해야 했으며, 초창기의 선배들은 꽃다운 청춘을 하늘에 바쳐야 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생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언제나 몸과 마음을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은 현대식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구비한 세계수준의 장교 양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공군사관학교, 1985년 충북 청원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최초로 49기 여생도가 입교하는 등 도약을 거듭한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상을 사진을 통해 알아보자.

한국전쟁기의 1기 생도



- ① 최초의 공군사관학교 생도들 :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됨에 따라 입교한 공군사관학교(김포기지) 1기생들의 조회 모습(1949, 10, 1)
- ② 진해캠퍼스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진해만에 새 터전을 마련한 공군사관학교가 1958년 12월 서울 캠퍼스로 이동하기까지 만 7년 동안 머문 진해캠퍼스 전경(1951, 5, 1)
- ③ 최초의 교훈 : 공군사관학교 최초의 교훈인 무용(武勇), 이승만 대통령이 하사한 친필 휘호를 1954년 3월 1일 공군사관학교 교훈으로 제정하였다. 또한 공사십훈은 공군사관학교가 제주에서 진해까지로 이동 직후 당시 부교장이던 김득룡 중령이 전문을 구성하였으며 문관교수 이흥기 씨와 함께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사교훈 "무용"은 이후 1966년까지 교훈으로 사용되다 1966년에 "지(智)·덕(德)·용(勇)"으로, 1970년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1951, 5, 1).
- ④ 첫 졸업 및 임관식 :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생도는 1949년 6월 10일 97명이 입교하여 2년 동안의 사관생도 생활을 마치고 1951년 8월 5일 83명이 졸업하였다. 사진은 '51년 8월 5일 진해까지 공군사관학교에서 이승만 대통령, 신익희 국회의원, 장 면 국무총리, 이기붕 국방부장관, 무초 주한 미대사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 군악대의 연주로 거행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행사 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L-4 항공기 편대의 축하비행 및 F-51 항공기의 시범비행이 있었다(1951, 8, 5).

대방동 시절



⑤

5. 대방동 이전 : 서울 대방동에 공군사관학교 신축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진해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1958년 12월 13일 대방동으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사진은 1958년 12월 12일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서울 대방동으로 이동하기 위해 진해기지에서 트럭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1958. 12. 12).

6. 1962년 2월 23일 공군사관학교 대강당에서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병권 국방부장관 및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공군사관학교 제10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사진. 공군사관학교 제10기 사관생도는 1958년 4월 1일 84명이 입교하여 4년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1962년 2월 23일 63명이 졸업 및 임관하였다.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오고 있다(1962. 2. 23.).

⑥



7. 최초 美 공사 방문 : 미국 공군사관생도와 한국 공군사관생도 교환계획에 의해 최초로 1964년 11월 4일 한국 공군사관생도 4명(4학년 장덕수, 안병하 생도, 3학년 이권주, 이용렬 생도)이 1개월 일정으로 미국 공군사관학교 및 미 공군기지를 방문하였다. 사진은 방문기간 중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한국 공군사관학교로 보내는 도서기증에 앞서 기념촬영한 장면(1964. 11. 4.)

8.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제식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1967. ?. ?.)



⑦



⑧

청주의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현재



⑨



⑩

9. 청주지역 이전 :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를 청주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이전계획에 따라 충북 청원지역에 공군사관학교를 신축하고(1984년 12월 공사 완료) 1985년 12월 21일 부대이동을 완료하였다. 사진은 1986년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충청북도 보은군/청원군 일대에서 야외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행군훈련을 실시하는 모습(1986. 8. 19.)

10. 최초 여자생도 입교 : 공군 제49기 사관생도부터 최초 여자 사관생도가 입교하게 됨에 따라 1997년 2월 22일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입교식이 거행됨(1997. 2. 22.).

11. 교수부 강의실에서 미 교환교수의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2003. ?. ?.)

12. 비행시뮬레이터에 탑승 중인 생도들(2004. 1. 13.)



⑪



⑫



3 60기 생도맞이, 공군사관학교 2

가입교 훈련·비행실습훈련을 지켜본 소설가 권현숙의 시선

신화에 도전하는 사람들

인간은, 감히 신의 영역을 넘보고 그 울타리를 타넘으려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게 인간적 규모를 넘어서려는 욕망은 마침내 육상동물인 인간을 새처럼 날게 했다. 새처럼? 너무 서정적이군. 맹금류로 교정한다. 그랬다. 관찰자의 눈으로 본 공군사관학교는 맹금류조련학교였다.

공군사관학교에 도착한 첫날, 운 좋게도 60기 예비생도가입교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 전투복 차림의 예비메추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선서를 하고 군가를 불렀다. 군기가 바짝 들었다. 쉬는 시간에 어디론가 가는 메추리들을 따라가 보았다. 어설픈 직각보행으로 긴 줄의 끝에 가 서는데... 어라, 군의관님 앞이다. 인상 좋은 군의관님이 전투화를 벗은 메추리들의 맨발에 일일이 일회용 밴드를 붙여주고 있었다. 작년만 해도 이런 풍경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한다. 전투화 속에서 물집과 양말이 찰싹 달라붙어도 군의관 앞에 맨발을 들이밀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게다가 60기 메추리들은 메추리 특유의 고약한 메추리 냄새도 안난다고, 땀내 흠내 범벅된 전투복을

학교에서 세탁해주기 때문이란다. 일학년 진짜 메추리의 시니컬한 한 마디, '우리 때에 비하면 날로 먹는 거죠.'

"남자친구 있으십니까? 아름다우십니다." 동기끼리의 농담이 아니다. 군사훈련 중 쉬는 시간 텐트 안에서 가입교 메추리가 감히 공포의 대상인 훈련지도 여생도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 "지도생도의 팔뚝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훈련 열심히 받아 몸짱이 되고 싶다는 가입교 메추리의 돌발행동도 눈에 띄었다. 인성교육시간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생곡선을 그리라'는 지도생도의 주문에 한 예비생도가 심각하게 고해했다. "이제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접고 맘 잡고 공부해서 공사왔습니다." 열여덟살의 자서전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현장이었다.

이방인의 눈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입교 메추리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지도생도들의 위용이었다. 당연히 교관들인 줄 알았다. 당당한 태도, 오싹한 눈초리, 위엄있는 목소리, 영화에서 보던 무서운 교관 그대로였다. 생도가 생도를 교육한다는 시스템이 무척 흥미로웠다. 미래의 지도자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어쨌거나 내 눈에 완전 군인으로만 보이는 저 지도생도들도 삼년 전엔 어설픈 가입교 메추리였던 말이지? 생도들의 훈련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

완전군장하고 무용구보 뛰는 생도들의 군화소리가 땅을 울렸다. 구령소리, 군가소리가 우렁차다. 구보의 내공이란 저런 것인가. 부대속도가 일정하다.

젊은 생도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났다. 가속도 훈련장이자. 잠시 후, 급격한 중력증가로 눈은 튀어나올 듯 커지고 볼은 움푹 패이고, 고개는 위태롭게 흔들린다. 이 생도는 알고 있을까. 지금 동기들이 칠십대 노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공사 외곽 산비탈을 오르자 한 무리의 생도들이 삼각대를 세워놓고 연기를 피우고 있었다. 생활교육 중인 삼학년 생도들이다. 매서운 바람, 거친 햇볕에 단련된 식탁대 같은 교관들이 갖가지 생존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다. 식용식물 구분법, 독사 판별법, 땃 놓는 법, 낙하산으로 천막 치는 법, 자연을 이용하여 정수기 만드는 방법 등등. '아무리 비싸도 전투기는 사울 수 있지만 조종사는 사울 수 없기 때문' 이란다. 이 노련한 교관들에게 생존법을 익히고 나면 사막이나 남극이나 적진 한가운데에서나 능히 살아 돌아올 수 있으리라.

메추리가 맹금류로 거듭나는 과정은 치밀하고도 치열했다. 훈련 고비고비마다 신화에 도전하는 인간이 아니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켜켜이 포진되어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극복하고 이제 막 첫 솔로비행을 성공하고 내려온 두 명의

여생도를 만났다. '오크네' (추녀)겠지 지레 짐작했는데, 웬걸 '엘프네' (미인)인걸. 이 미모의 아가씨들이 정말로 그 험한 과정을 다 견뎌냈단 말인가. 여자인 내가 그렇게 질문하기는 싫었다. 그래서 완전무식하게 물었다. 기분이 어땠어요? 경치는 좋았나요? "내려다 볼 여유 같은 거 없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룩한 지 일분도 안 된 것 같은데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착륙이었어요. 아직 발이 땅에 닿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솔로의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복숭아 같은 볼이 엇되고 아름답다. 솔로의 흥분을 뒤로하고 연병장 길로 나섰다.

저 상태로 완주할 수 있을까.

부대에서 떨어진 가입교 여자메추리가 반의식 상태에서 뛰고 있었다. 낮빛은 붉다 못해 자주색이고 발걸음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다. 좌청룡 우백호, 메추리는 외롭지 않다. 왼쪽에 교관님, 오른쪽에 생도대장님이 꼴찌 메추리를 엄호하며 나란히 뛰고 있었다. 아직 부대는 보이지 않는다.

낮게 으르렁거리는 훈련기 소음이 배경음처럼 깔린 캠퍼스를 새삼 바라본다. 조용한 것 같지만 저 안에서는 인간 한계를 극복하려는 맹금류들의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신력의 극점까지 자신을 밀어부치면서 신화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들만의 세상.

꼴찌 메추리가 완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권현숙

장편소설 <인살라 1, 2>, <루마니아의 연인>

소설집 <나의 푸르른 사막>, <인간은 죽기 위해 도시로 온다>

작가세계 신인상, 한겨레신문 문학상을 수상했다.



새벽 활주로에서

또 하나의 성소에서 비상과 이륙을 꿈꾸며

최지웅 | 시인, 창공클럽 회원

새는
오직 두 날개로
푸른 창공을 거침없이 날지만
비행기는
육중한 그지없는 비행기도
무서운 전투기도
활주로가 없이는 날지 못한다.

이제
활주로는
하나의 마을이 되어 버린
지구촌의 간밀한 인적교류와
영혼을 싣고 나르며 교류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시적인 표현과 편향일까마는
세계의 물류를 위한 기항지이며
대한민국 공군의
광활한 활주로는
국가안보라는 막중한 전략과 책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소였다.

새벽

연인들의 밀어가 돌아나는

저물녘처럼

그 곱고도 애잔한 등불이 켜지듯

활주로의 황홀한 조명이 꿈꾸듯 켜지고

연인들의 밀어가 진하다 못해

새벽시간까지 스러지는

어스름 하늘에

돌아오는 계명성 어느 곳인가에서

아직 돌아 있고

상현달도 서쪽 하늘에 떠있는 시간에

우리는 활주로를 걸었네.

서양의 명화 속 한 장면처럼

질은 안개와

찬 바람 속에서.

활주로가

날고 내리는

무수한 비행기들을 위하여

중동의 값비싼 카펫 양탄자 모양

그렇게 갖은 못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도 철저하게 활주로 위를

마치 자기 집

안 마당의 정갈함처럼

안방과 거실같이

쓸고 닦고 조이며

섬세하게 관리하는 줄은 미처 몰랐네.





그 거대한 광장과도 같은
 광활한 깨끗하게 관리되는 활주로가 있어
 엄중한 활주로가
 온전히 있어
 아니면 못 하나만 있어도
 파열할 수 있는 활주로의 위험과
 엄중한 경계와 비상 속에서
 길고 긴 하늘의 항해도
 육중한 쇠덩이 이상의 비행기
 전투기들이
 가볍고 무사하게
 인간과 세상의 큰 새 되고
 거대한 날개 파닥이며 날아오르고
 창공을 질주할 수 있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
 그 새벽에.

언젠가는
 새벽이 아니라
 노을이 아름답게 깔리는
 활주로를 걷고 싶네.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내 영혼의 반쪽과 더불어.

나의 날개는 무엇일까.
 우리의 날개는 과연 무엇일까.
 나도 묶여진 존재가 아니라
 지상에 철저히
 현실에 철저히 포박된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삶의 유형수가 아니라
 나도 푸른 창공을 향하여
 노고지리처럼 날아 오르고 싶은데.



푸르게
푸르게 현기증이 나도록
비상하고 싶은데
나의 작은 비행기는 어디?
그리고 나의 비행기가 날아오르고
이륙할 수 있고 착륙할 수 있는
영혼의 활주로는 어디일까.

우리들의
또 다른 비행기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중동의 알리바바 양탄자보다
카펫보다 더 값비싸고
고귀하게 만들어 달리고 내려야 할
지상의 삶의 활주로는 어디?

날기 위해서는
반드시 땀흘려 만들어야만 하는
누군가들이 장엄하게 땀흘리고
수고하여
창공의 비상을 위해서
지상의 견고하고도
깨끗한
그리고 무한대의 창공을 위한
대지의 어머니 같은
활주로가 있어야 하리.

작은 활주로는
작게 날고 뜰 수 있고
크고 거대한 활주로는
힘들고 공들인 만큼
아득한 창공과 거리를
날아가 닿을 수 있으리니.





그러나
크고 광활한 활주로가 아니더라도
그 거대하고 아득한 거리가 아니어도
나에서 그대에게 이르는
영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나에서
그대에게 이르는
그대에게서 나에게로 이르는
세상과 마음의 거리는
도대체 어느 만큼일까.
영혼의
작은 거리인가
아니면 아득한 거리인가.

그
거리를
때로는 무한히 가깝고
때로는 차마 아득한
그대와 나 사이의 마음과
영혼과 세계를 잇고
날기 위한
활주로는 어떤 활주로일까.

나는 때로는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예쁘고 그윽한 비행기로
때로 나는
영혼의 양탄자를 타고 날으는
그리움의 카펫을 타고 날으는
알리바바의 비상도 비행도 꿈꾸곤 하는데.

비록 거대하지 않아도
내가 그대에게 날아가 닿을 수 있는
작고 예쁜
지상의 작은 활주로는 어디?



지상의

넓고 긴 광장보다도
또 다른 작은 활주로
한 뼘의 정든 땅 위에서
영혼의 작은 창을 열어 놓고
그대에게 부르는 작은 노래
창공에 띄워
작은 하늘에 띄우고 부치는
나와 우리의
소담하고 아름다운
작은 활주로

새벽

푸르른 시간과
노을 젖은 아스한 시간에
내가 그대에게 고요히 날아
때로는
별에서 별로 가는
작은 왕자와 공주처럼
그런 또 다른 자유의 항해와
푸르고 부신 몽상과도 같은
그리움의 항해와 비상을 위한
활주로를 꿈꾸리.

작품 후기

쉽지 않은 일정에, 무려 한 시간을 터미널에서 추위 속에서 차를 기다리다가 막차를 잡아타고 비행단으로 질주한 스산한 밤 여행이 었다. 그런데 그 밤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투단 병영에서의 하모니카 연주가 있었고, 캔터키 옛집과 바우고개의 선율 속에서, 우리들의 블루스처럼 느리고 깊게 흐르는 강물의 합창으로 어우러진 노래와 기타의 축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일정의 백미였던 새벽 활주로 밝기 시간에 나와 우리는, 이 땅의 무수한 전투기들이 자유롭게 날기 위해서는 얼마나 활주로가 중요하고 또한 값비싸게 존재하고 또한 공군장병들에 의하여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생생히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 삶에서의 비상과 우리의 이룩을 위한 예쁘고 작은 비행과 활주로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 삶과 사랑의 자유와 그리움의 비상을 위한 또 다른 엄숙한 활주로의 존재성과 더불어, 그 새벽 어스름 잠입한 시간에 행진하며 밟아보았던 이 땅의 또 다른 엄숙한 성소처럼 느껴지던 활주로 위에서.

최자웅 시인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중앙대·한신대·성공회대·서강대대학원, 독일 보쿰대학 박사과정을 수료. 시집 〈그대여 이 슬프고 어두운 예토(穢土)에서〉(1983), 〈겨울늑대〉(1991), 일찍이 나눔의 집, 빈민운동에 참여. 現 (사)한국작가회의 회원, 참여연대 자문위원. 현재 작은 섬에서 사제로서의 사목활동과 함께 고향상실의 시대와 현대에서 참된 인간의 고향과 사랑의 구원을 노래하는 시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유타주 Ogden 항공군수본부에서 501항공지속대대 정비사들이 요르단 공군 장병과 F-16의 냉각관을 재설계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후방의 전사들 HOME FRONT WARRIORS

민간군무자들이 군수전비태세를 유지시키고 있다

원문 美공군 (Airman) Magazine | 번역 박준오

오전 3시 45분, Tina Stalker-Betts 씨가 요란한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뜬다. 오늘도 어김없이 조국을 위해 출근하는 하루. 오후시간대 교대근무인 남편 Mike는 계속해서 잠을 잔다. Tina는 강아지들을 내보낸 뒤 출근 준비를 하며 진한 커피 한 잔을 들이킨다.

Tina는 출근할 때 군복을 입지 않는다. 유타주 Ogden 항공군수본부(Air Logistics Center)에서 C-130 판금 기계공으로 근무하는 Tina는 아침뉴스를 들으며 벨벳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화를 신는다. 그는 이제 비로소 출근할 준비가 되었다. “공군이 해외에 싸우러 나가면 저희도 그 일부인 셈이에요. 그들의 항공기를 정비하는 게 바로 저희 임무니까요.” 이미

손자, 손녀를 다섯이나 둔 45세의 할머니 Tina가 말한다. “저흰 그냥 어디 막연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투를 수행하는 공군의 뒤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는, 저희가 그들을 믿는 만큼 그들도 저희를 믿고 있죠.”

Stalker-Betts 씨는 유타주 Hill 공군기지에서 근무하는 2만여 명의 민간 정비사들과 함께 공군의 대테러전 임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곳 정비장은 군무자의 약 90%가 민간인이며, 유타주 최대의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런 특이한 모습이 Ogden 정비장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미 공군 물자사령부는 이 곳 외에도 조지아주 Robins 공군기지의 Warner Robins 항공군수본부와 오클라호마주

Tinker 공군기지의 Oklahoma City 항공군수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오클라호마에 위치한 정비창이 가장 크며, 이들 세 개의 정비창이 함께 미 공군의 범세계적 정비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미 공군의 활동을 보면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작전이 되었든 물자사령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부터 시작해서 장병들이 신는 전투화까지 저희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Ogden 항공군수본부장인 Kathie Close 소장이 말한다. “그런 손길의 지문은 대부분 바로 이 3개의 항공군수본부에서 찍히는 셈이죠.”

항공군수본부는 창 정비, 제품지원, 서비스, 물품공급경로 관리 및 공군 무기체계 관리 임무를 담당한다. 3개의 항공군수본부는 다함께 30종 이상의 무기체계, 10개 주요 공군사령부, 93개 공군기지 및 46개 국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Ogden 본부는 75기지비행단, 84전투지속단, 309정비단과 508항공우주지속단 총 4개의 비행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공군'

민간 근무자들은 각 정비창에서 모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Hill 공군기지에서는 C-130 정비와 A-10 Thunderbolt II 점검정비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로 F-22 Raptor, F-16 Fighting Falcon, A-10 정밀교전(Precision Engagement) 및 수명연장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C-5 Globemaster III 바퀴 및 제동장치 향상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공군 장병들은 민간 근무자들 옆에서 나란히 함께 근무하지만, 그 수가 현저하게 적다.

“민·군 비율이 일반 대대와는 정반대지만,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대대에는 저를 포함하여 군인이 다섯 명뿐인데, 그냥 업무하는 방식이 다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506항공지속대대장 Wallace Addison 중령이 말한다. Addison 중령은 Hill 공군기지의 민간 근무자들의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공군의 전투수행원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며, 공군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Addison 중령은 이들의 헌신적인 공로를 치하한다.

2006년 7월, 309정비단은 Gold Level Shingo상을 수상했다. 제조업계에서는 노벨상쯤에 해당하는 상으로, 2005년 전에는 민간기업에만 수여되었다. “군인, 민간인과 계약직 근무원들로 구성된 저희 연합공군팀은 전선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전투수행원들에게 항공기와 엔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lose 소장이 설명한다. “미국인으로서, 전투수행원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장비를 제대로 제공해 주기 위해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애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필요한 작업에 따라 무기체계별로 정비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르다. 하지만 어느 한 장비가 정비창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된다면 그건 곧 그 장비를 필요로 하는 전선의 장병들이 그만큼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곳 근무자들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 올해 Ogden 정비창 근무자들은 3년 연속으로 CCI(Common Configuration Implementation)



Ryan Wiggill 씨가 바퀴 품질검사 시 사용되는 초록색 염료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Catherine Knaus가 A-10 Thunderbolt II 내부 전선에 연결되는 데이터버스 접속장치를 배열하고 있다. A-10 정비사들은 A-10의 전선체계에서만 2,167개의 연결성 확인 및 1,200개의 장치 확인을 한다.

프로그램에 대해 100% 적시 작업완료 기록을 세웠다. Addison 대령은 이러한 위업이 완벽 이상을 추구하려는 근무자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한다.

미래의 전략 양성

3개의 항공군수본부에서 근무하는 수만 명의 근무자들은 생산라인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공군 임무 지원을 위한 민간 근무자들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엔 미 공군 21세기 특수작전 구상(Air Force Special Operations for the 21st Century Initiative)을 이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수십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 정비장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비용절감도 이루어졌으나 이들은 아직도 혁신적인 업무수행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무수행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군이 더욱 철저히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중위시절 388구성품수리대대에서 근무하기도 했던 Close 장군이 말한다.

이곳 3개의 정비장들은 인근 교육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최고로 유능한 근무자를 양성하고 있다. 기술자들은 교육을 통해 공군의 소요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하여 군수본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정밀함과 양질의 재능을 키운다.

이러한 ‘양질의 지속성’은 근무자들의 평균 연령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 Ogden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목표는 이들이 근면이라는 군수본부의 가치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군수본부는 항공기와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신생 기술과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는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519소프트웨어정비대대장 대행인 Kenny Bennett 씨가 설명한다.

소프트웨어정비대대는 군수본부의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 73%가 민간 공학자들로서, 미 국방부에서 최초로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5등급 승인을 받은 부대이다. 이는 곧 공군이 임무수행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시에 최저가에 제공하기 위해 최고의 운영 및 기술적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 및 향상시



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부대는 컴퓨터 기반의 항공선 지원장비, 우주체계, 임무 기획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작전비행프로그램, 공통 항공기 휴대용 재프로그래밍 장비를 비롯하여 무기 및 항전장비 소프트웨어 전환을 위한 암호장치를 다루고 있다. HH-60, B-52, F-15와 같은 항공기와 각종 우주체계들을 작동시키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이곳에서 작업을 거치고 있다. “솔직히 이곳 민간 공학자들이 민간기업에 나가서 일한다면 돈은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많은 책임감과 자부심 같은 걸 느끼죠.” Ogden의 Bennett 씨가 말한다. “F-16 조종사가 기내에 탑재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덕분에 자신을 비롯해서 25명의 지상군이 살았다는 얘기를 해주었을 때 많은 긍지를 느꼈습니다. 정말 놀라웠죠.”

Ogden의 근무자들은 공군이 최고의 무기로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곧 민·군 근무자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임무의 완수뿐만 아니라 공군의 발전과 진보를 향한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Close 장군이 말한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전투수행원들이 전쟁이나 우발사태, 공군이 참여하는 그 어느 작전에도 완벽히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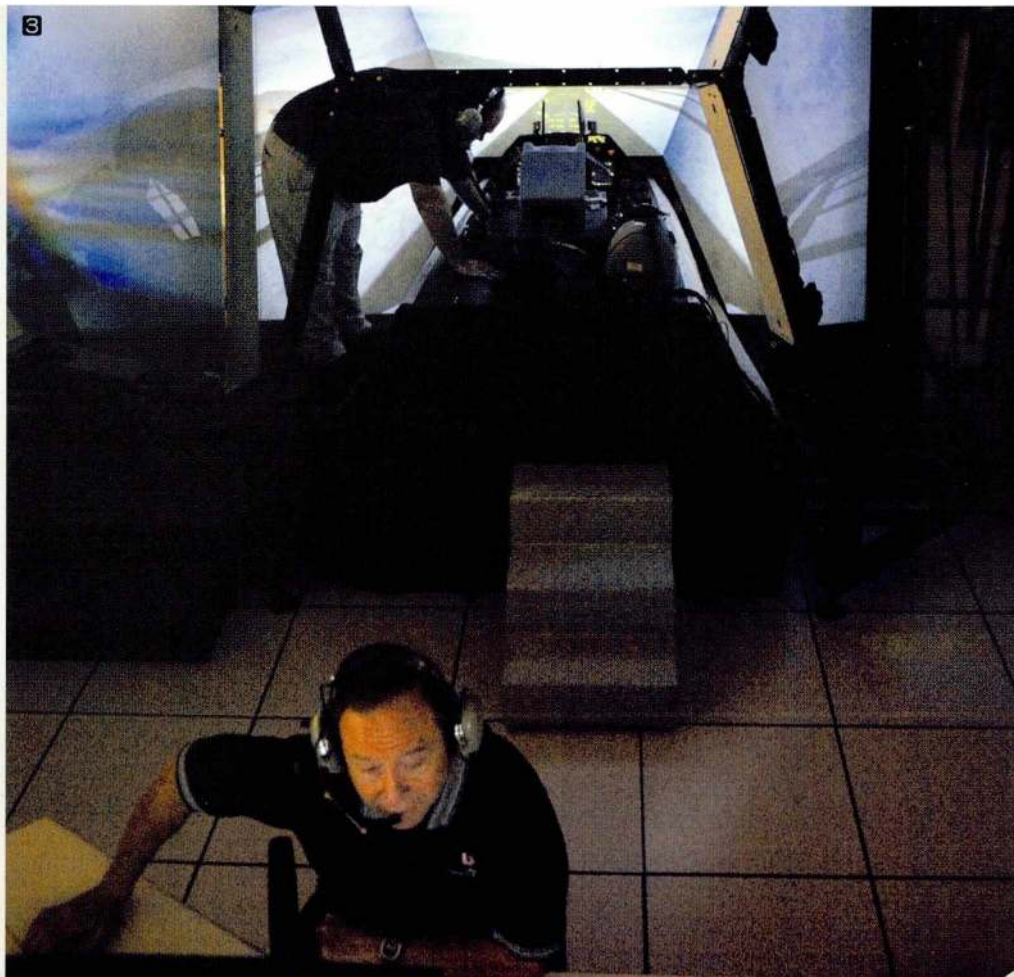
Ogden, Oklahoma City와 Warner Robins의 근무자들은 후방에서 이처럼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수록 전방의 공군 전투원들이 더 빨리 전투준비가 완료된 무기체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출근하기 직전 Tina는 강아지들을 집에 다시 들인다. 오전 5시 15분. 이제 45분 후면 Tina는 자신의 맘과 지식, 경험을 모아 바로 자신의 집 앞에서 미국의 전쟁을 함께 싸운다. Tina는 자신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미국의 공군 전투원을 위해 근무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저희들에게 의존합니다. 전투를 위해 필요한 항공기를 받아서 싸우고 안전하게 고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말이죠.” Tina가 말한다. “제 남편도 정비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임무의 가치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1 Aaron Pfaff 씨와(위) Frank Leavitt 씨가 C-5 Galaxy 바퀴 및 제동장치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랜딩기어를 분해수리 중이다.

2 Art Terry 씨가 염료용액으로부터 미세입자를 분리할 때 사용되는 필터를 꺼내고 있다.

3 508항공우주지속단 소속의 Andrew Ray 씨와(앞) Al Thomas 씨가 F-16 Block 30 시뮬레이터를 점검하고 있다.



Hot SKETCH

참모총장, 최초 영상 지휘통화 실시

참모총장은 2월 7일, 설날을 맞아 공군본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외 파병 및 격오지 근무 지휘관들과 화상회의의 체계를 활용하여 '최초'로 영상 지휘통화를 실시하고, 설 연휴기간 부대 운영을 점검했다.

참모총장은 이역만리 쿠웨이트에서 설을 맞이하는 제58항공수송단(다이만 부대)을 시작으로, 설에도 24시간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296비행대대, 최동단에 위치한 관제대대, 최고도에 위치한 방공포대 지휘관들과의 화상 지휘통화를 통해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설 연휴 기간 중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지휘통화는 '안으로 열리고 밖으로 연결된 공군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중 전군 최초로 전 공군부대에 구축한 실무용 화상 회의체계를 활용한 것으로, 해외는 물론 산간·벽지에 이르기까지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전 공군 장병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공사 56기 사관생도 격려

참모총장은 2월 4일, 금년 3월 중순 졸업 및 임관을 앞두고 있는 공사 56기 사관생도들의 공군본부 방문을 맞아 오찬을 베풀고 격려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생도들에게 "지금 공군의 화두는 경쟁력인 바, 스스로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각 개인의 경쟁력을 함양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공군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도들을 격려했다.



◎ 신임 충남대학교 총장 접견

참모총장은 2월 4일, 신임 인사차 공군본부를 예방한 송용호 충남대학교 총장을 접견하였다. 이날 양측은 항공우주력 건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공군과 군사학과, 천문우주학과 등 국방 및 항공우주분야 학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우주분야'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되 의견이 모아졌다.



◎ 중앙보안감사단장 접견

참모총장은 2월 12일, 공군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앙보안감사를 위해 내방한 감사단장 정임재 대령을 접견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모총장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있지만, 보안의식이 희박한 사람과는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자신의 보안 철학을 소개하고,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 공군본부 보안업무가 보다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단장은 최근 주변국들의 해킹능력이 크게 신장된 바, 이번 감사는 공본 전산체계의 해킹 방호능력 등 전산보안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할 것이며, 감사를 통해 공본 장병 및 군무원들이 전산보안을 비롯한, 보안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항공력발전위원 위촉장 수여

참모총장은 2월 14일, 항공력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 : 이광희 예비역 소장) 신규임용 위원 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총 위원 14명과 환담했다. 이날 참모총장은 "지금 공군은 實事求是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장 절실한 만큼, 항공력발전위원들이 현재 공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결과물들을 산출해 내으로써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공군에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 순시 및 간담회

참모총장은 2월 19일,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를 방문,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임무요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모총장은 금년도 공군의 Key Word는 '경쟁력'이라고 전제하면서 "무기체계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쟁 수행방식과 전장공간관리의 개념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과거의 전쟁 수행 개념에 고착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은 바, 29전대 전 요원은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전술개발, 관련 교리 발전, 무기체계 운용 등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력 함양에 노력을 결집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접견

참모총장은 2월 22일, '각 군 방위력 개선 사업설명회' 참석차 계룡대를 내방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접견하고 공통관심사에 관하여 환담하였다.

AIR FORCE NEWS

공군은 지금



◎ 제1방공포병여단, 전시 전환훈련 실시

제1방공포병여단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전술 조치 및 작전요원 기량 향상 등 전시 작전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전시 전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상 적기 공격에 따른 방공포병작전과 기지 생존성을 보장하는 기지방어 훈련 등 실전적인 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여 전시 작전에 대한 장병들의 자신감을 확인했다.



◎ 제1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교육용 포토툰, '목상병' 시리즈 인기

제1전투비행단 헌병대대에서 부대장병들을 대상으로 연재하고 있는 포토툰(photo + cartoon) '목상병' 시리즈가 부대 장병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시리즈는 가상의 1전비 병사 목상병을 주인공으로, 경례 태도, 음주운전, 장거리 운전시 착안사항 등 준수해야 할 외적 군기와 주의사항 등의 요령과 중요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켜 주는 교육홍보물이다.



◎ 제15헌성비행단 237전술통제비행대대, 12만시간 무사고 기록 달성

제15헌성비행단 237전술통제비행대대가 12만시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였다. 이 기록은 지난 1975년 10월 23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32년 4개월이라는 공군 역사상 최장기간 무사고 기록이다.



◎ 제16전투비행단 216비행교육대대, 1만시간 무사고 기록 달성

제16전투비행단 216비행교육대대가, 1월 29일 1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이번 기록은 29일 오전 10시 216대대 소윤영 대위(34세)와 김동철 중위(24세)가 조종하는 T-59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달성되었다.

2008 March



◎ 제17전투비행단,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식

2월 15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보통군사법원 심판관' 임명식이 있었다. 보통군사법원 심판관은 군사재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재판 시 본부에서 파견된 2명의 군판사와 함께 재판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직책이다.



◎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 SMS 제공

교육사령부 기본군사훈련단 부사관 교육대대에서는 훈련 내용을 수시로 안내함으로써 자녀를 군에 맡긴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주요 훈련 내용과 교육 상황을 보고하기 위한 문자전송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를 기본군사훈련 과정에 적용,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군수사령부, 군 최초로 무진동차량 운행

군수사령부 60수송전대는 고가의 정밀 부품과 계측장비 수송에 필요한 특수차량인 무진동 차량(Air Ride Truck)을 최근 도입, 공군 전 기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다. 군 최초로 공군에 도입된 것으로 이를 통해 정밀 군수물자의 육로를 통한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게 됐다.



◎ 제37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임관식

제37기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임관식이 2월 27일 군 관계자, 임관자 가족 및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과 동시에 임관하는 165여 명의 신임 하사들은 지난 3년 동안 일반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기술부사관으로서 필요한 기술교육, 졸업을 앞두고 실시된 높은 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영예롭게 졸업 및 임관함으로써 과학 공군의 핵심요원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혼(魂)이 담긴 항공기 정비가 다이만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글 상사 김성한 | 제58항공수송단

겨울이 시작되는 지난해 11월의 어느 날 새벽, 나는 찬 바람을 맞으며 가족들에게 무사히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굳게 하였다. 그리고 6개월을 함께 보내게 될 C-130 항공기에 몸을 싣고, 다이만부대가 있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기지에 온 지도 3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비록 생애 첫 해외파병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인가?”라는 명제에 대한 답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나 스스로에게 “혼(魂)이 담긴 정성스러운 항공기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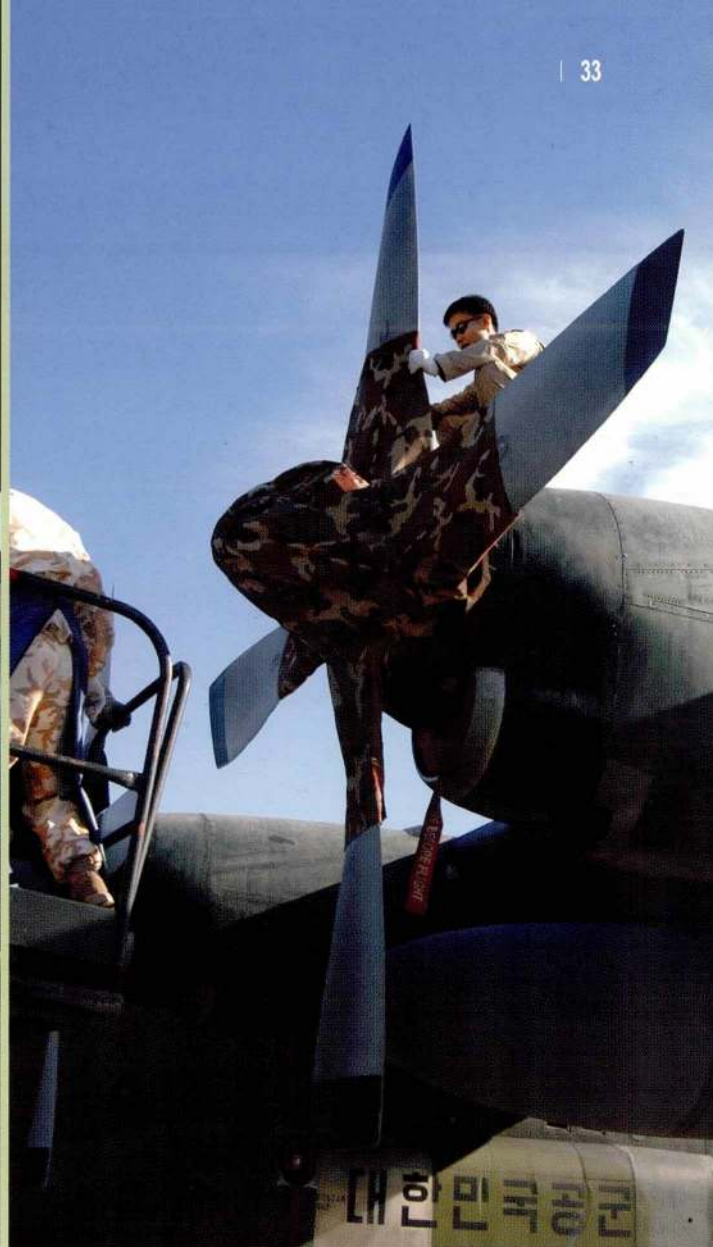
나는 항공기 기상적재사(Load Master)와 기체정비사라는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상적재사는 항공기에 조종사와 함께 동승하여 화물(Cargo)실 안전상태, 각종 Door 및 스위치 조작, 무게중심에 의한 인원과 화물의 적하

역, 공중화물투하 통제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나의 임무는 적대세력의 지대공 위협이 상존하는 전장지역에서 항공작전 임무가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여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자연적 작전환경으로부터 항공기 상태를 100% 완벽하게 유지하여 주는 정열적인 임무이다.

4시간여의 비행, 하늘과 땅이 눈앞에서 교차되는 긴박한 시간을 지난 후에는 강하게 무장한 나의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피로감이 나의 어깨를 짓누른다.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또한 내가 감당하여야 할 과업인 것을 알고 있다.

작전의 완수는 또 다른 시작

항공기가 무사히 지상에 착륙하여 하루의 작전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는 의미를 부여하기가 무섭게 다음의



작전수행을 위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작전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항공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다. 비행 후 약 1시간 동안 정해진 정비기술서(TO : Technical Order)에 따라 시행되는 항공기 검사는 하루의 임무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의 작전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다. 정비사인 나는 항공기 동체, 기관, 착륙장치 등 항공기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리고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 항공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항공기 검사가 마무리되면, 정상적인 항공기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유입을 막기 위해, 기관(Engine), 착륙장치(Landing Gear) 등 항공기 외부 주요장비를 보호용 덮개(Cover)로 꼼꼼히 덮는다. 이것은 사막의 작전환경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최종 임무이다. 모든 작전과

정비지원을 마치고 보호용 덮개(Cover)를 장착할 때면 오늘의 임무를 완수하였다는 자부심에 정비사 상호간에 말없는 격려를 보낸다.

다이만부대가 전장지역을 누비며 작전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났고, 그동안 대한민국 파병역사에 기록으로 남기에 충분한 「전장지역 무사고 비행기록 5,000시간과 전장출격 2,000회 기록」을 달성했다. 나는 이 기록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적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강한 자부심이 있다. 첫 파병의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혼(魂)이 담긴 항공기 정비업무로 다이만부대의 성공을 보장하겠다는 각오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리고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㉞

공군 사랑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 국민과 공군 간의 공감대 형성 위해 출발한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

연인을 향한 불 같은 사랑보다 고향에 대한 짙은 그리움이 마음속에 더 오래 남는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변하지만 내가 몸을 담고 꿈을 키웠던 고향은 바꿀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대한민국 성인남성들은 마음속에 조금씩 그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모두 한곳에 대한 향수를 품고 있는데, 다름 아닌 바로 “軍”이다. 젊은 시절 인생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軍”에 대한 향수는 애증(愛憎)의 형태로 남아 무슨 일이 생기면 꼬집어 보게도 하고, 연민(憐憫)이 되어 따뜻하게 품어주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군을 후원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공군발전협회」도 이러한 배경에서 만들어진 단체다. 공군 주간 웹진 「공감」 팀에서 서동열 예비역 공군 대장을 만나 보았다.

글 웹진 「공감」 편집팀 | 사진 종사 편보현



아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향해 조직을 정비하고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데, 이렇게 공감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설립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공군 예비역으로서 모군을 지원하고 전역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존의 여러 예비역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5년 전 공군 전우회를 창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좀더 보람 있는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재정적인 문제 등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든든해야 하는데 단순한 친목단체의 성격을 지닌 전우회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군예비역은 물론 공군을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군발전협의회」를 설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민간차원에서 공군을 지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신 것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역이시니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군인으로서 지키는 대상인 국민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공군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랑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Made for 空軍

- 「공군발전협회」, 아직은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할 듯합니다. 지난해 11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으니 사람으로 비유하면 아직 걸음마를 배우기에도 너무나 이른 나이니 많은 분들이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간혹 마스크를 통해 특정한 분야의 문제가 대두될 때 국민들께서 공군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표현을 공군이 직접 나서서 “우리는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처럼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공군을 신뢰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 그런 사회 분위기를 가까운 이웃나라와 비교한다면 어떤가요?

지난해 일본 자위대의 초청으로 군에서 기획하는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행사를 위해 도시 중심부에서 수많은 장비와 병력들이 이동하느라 매우 번잡했습니다. 속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차량에 “항공지위대 힘내라!”라는 의미의 플래카드와 확성기를 달고 거리를 다니면서 항공지위대를 응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열성적인 단체로부터였지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을 일본 항공자위대원들이 부러웠습니다. 잘못된 일을 질책할 때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군에 대해 아낌없이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다면 Role Model로 생각하고 계신 단체나 기관이 있으신가요?

예를 하나 들자면 미 공군협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 공군을 대표하는 Airforce Magazine을 발행하여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 공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군이 지향하는 특정 정책사안을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합니다. 또 더 넓게 생각한다면 안보와 전략 분야에서 저명한 미국의 랜드연구소처럼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방향성을 설정하는 기본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늘사랑, 공군사랑

– 공군에 대한 사랑이 깊은 만큼 비전도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예비역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공군에 대한 아쉬움을 자

주 토로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하늘에 바쳤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 후배들이 그러한 노고를 충분히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겠지요. 하지만 민간인의 입장에서 공군을 대하는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을 모으고 능력을 키워서 공군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예비역들의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연구해서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도 하고, 군과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종의 가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가슴에 사랑이 남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겠지요. 앞으로 우리 공군발전협회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 「공군발전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거대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비역이 중심이 된 우리협회의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씩 영역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먼저 “공군 모범용사 초청행사” 등 현역장병들을 위한 격려 행사와 “청소년 공군사랑 체험과정”처럼 친 공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 그리고 주한 미 공군 초청 친선행사 등 교류활동 증진을 도모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공감 식구들에게 드리는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도록 발전협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군을 사랑하시는 공감 독자 여러분께서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공군장병 여러분도 우리 「공군발전협회」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모두 저와 같은 예비역이 될테니까요. ☺

AROKAF : Association of Republic of Korea

Air Force, 커다란 S자는 태극문양으로 대한민국,

항공기는 공군, 위쪽 항공기는 현역, 아래쪽 항공기

는 협회 회원을 의미하며 동그랗게 모여 있는 7개의

별은 협회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7대 과제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www.arokaf.co.kr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때로는 자연에서 병에 걸려 도태되기도 하는 멧비둘기

위장의 명수 멧비둘기



글·사진 **현 준위** | 제20전투비행단 조류담당
현동선 준위는 조류의 생태를 파악하여 무작정 죽이기만 했던 조류를 살리는 방법으로 유도한 비행단의 조류담당자다. 윤무부 '교수'를 도와가며 '자료수집에도' 매진한 바 있는 그는 현재 항공기와 조류 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교본을 작성하는데 한창이다.

조류박사·현 준위의 Bird Alert 10

멧비둘기라고 하면 뭐 이런 새도 있나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산비둘기라면 들어 본 적이 있기는 한데...라며 대답한다. 예전에는 보통 산에 사는 동물들에 산토끼라든지 산비둘기라든지 하는 '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순수 우리말인 '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요즘에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참새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지만 한때는 시골에서 참새나 멧비둘기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포장마차에서는 참새구이를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었다. 나이가 50을 넘기신 분들은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에 참새구이 한 점을 안주로 먹었던 기억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후 참새가 맛이 좋다고 하여 품귀현상이 생겼고 어떤 사람들은 병아리가 깨어나면 수평아리만 골라내어 그것을 참새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였던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그 당시 멧비둘기도 흔한 사냥새였다. 나는 어릴 적에 고무줄 총을 이용해서 참새를 잡곤 하였는데, 어쩌다 운이 좋아 멧비둘기를 잡게 되면 정말 신이 났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절대로 아이들이 멧비둘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다. 만약 먹게 되면 나중에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돌밖에 남지 못한다고 하며 다산을 장려하던 옛 사람들은 아이들이 멧비둘기 먹는 것을 금기시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어른들께서 맛있는 것을 술안주로

하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이 아닌지 괜한 의심이 든다. 가끔 수렵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날개 달린 새 중에서 멧비둘기 맛이 최고라고 하였다. 어른들의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멧비둘기는 알을 정확히 두개만 낳는다. 아마 이렇게 산란을 적게 하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알의 숫자만 가지고 어른들이 멧비둘기를 판단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멧비둘기는 우리나라 텃새 중에서 가장 먼저 번식을 시작하여 가장 늦게까지 하는 새이다. 매년 2월이면 번식을 시작하고 두 달 간격으로 11월 말까지 번식을 한다. 대부분의 철새들이 일 년에 한 번만 번식을 하는 것에 비하면 일 년에 거의 4~5회 번식을 하는 대단히 번식력이 좋은 새이다.

멧비둘기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이다. 옛날부터 꿩 다음으로 많은 대표적인 사냥새였다. 여름에는 암수 1쌍씩 짝지어 생활하지만 겨울에는 작은 무리로 생활을 한다. 숲, 밭, 풀밭 등 땅 위에 내려 앉아 먹이를 찾아 먹으며 공원, 정원, 산림, 인가의 주택가 어느 곳에서든지 볼 수 있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자연림보다 오히려 농경지를 좋아한다.

둥지는 전나무와 소나무, 그 밖의 활엽수와 침엽수 등 높이 1~7m의 나뭇가지에 영성하게 만들되 이른 봄에는 소나무의 가지 사이에, 여름에는 아카시아 나무나 잎이 나오면 잘 보이

지 않는 나무에 둥지를 만든다. 둥우리의 주위를 나뭇잎으로 싼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나뭇가지로 조잡하게 둥우리를 튼다. 깊이는 5~6cm이고 안지름은 10~24cm 정도이다. 엉성하면서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가까이에서 보아도 그것이 새의 둥지라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이 위장이 잘 되어 있다.

어린 새의 머리꼭대기와 목은 갈색이며 목 옆에는 성숙한 새에 있는 검은색과 잿빛 쥐색의 가로띠 모양 얼룩무늬가 없다. 목 부분의 각 깃털에는 붉게 녹슨 듯한 가장자리가 있다. 땅 위에서 난알을 포함해서 식물의 씨와 열매를 먹으며, 특히 추수 후의 떨어진 벼를 잘 먹는다. 육추 중의 새끼에게는 콩과 고추씨를 즐겨 먹이는데 콩을 주로 많이 먹이고 있다. 시골에서 콩을 심으면 다음날 멧비둘기가 콩을 파내어 먹는 바람에 농부들이 이 새를 아주 싫어하기도 한다.

요즈음 공원이나 곡물저장고 주변에는 비둘기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수렵해제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 없어서 애를 태우곤 한다. 한두 마리가

베란다에 와서 앉거나 베란다 안의 빨래 건조대에 앉아서 배설을 하는 것은 꽤 CD나 강한 자석을 매달아 놓아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곡물창고나 다리 난간 등 작은 공간에 번식을 하기 위해 모여드는 비둘기들은 생각보다 쫓아내기 어렵다. 비교적 넓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새들이 출입하는 입구에 그물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거나 새들이 많이 앉는 부분에 그리스 같은 물질을 발라 놓아 접근을 막을 수밖에 없다. 비둘기를 비롯한 대부분의 새들이 늘 몸을 청결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리스 같은 물질이 발가락이나 깃털에 묻으면 처리를 할 수가 없어 한 번 그리스가 몸에 묻는 것을 경험한 새들은 그 지역에 다시 오지 않는 습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공항이나 공군기지 같은 넓은 지역에는 그물을 설치할 수도, 새가 앉는 모든 지역에 그리스 같은 물질을 모두 발라 놓을 수도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비행장 내에 비둘기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배수로 주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와 들풀에 매달린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이다. 가을에는 공항근처에 있는 농경지에서 벼씨를 주워 먹지만 여름에는 주로 풀씨를 먹기 위해서 활주로 주변의 잔디위로 모여든다. 결국 활주로 주변의 풀을 잘 정리해 주어야



멧비둘기 둥지와 알. 알은 두 개만 낳는다.



동지 근처의 아카시아 나무에 앉아 있는 멧비둘기



전기줄에 앉아서 깃털을 다듬고 있는 멧비둘기



철조망에 앉아서 어느 곳으로 날아갈까 고민 중인 멧비둘기

하는데 무엇보다도 풀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베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공항이나 공군기지에서는 풀의 높이를 15~25cm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풀이 열매를 맺기 전에 삭초 작업을 하는 것이 멧비둘기의 활주로 내 진입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활주로의 삭초 작업은 미관 고려를 우선 하는 곳이 많은데 사실은 조류의 접근과 서식을 막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또한 새들은 수시로 물을 필요로 하는데 활주로 중간에 있는 배수로로는 가장 매력적인 물 공급처이다. 또한 배수로에 물이 고이면 수서곤충이 서식을 하게 되므로 멧비둘기는 물론 다른 새들과 포유류들이 모이게 되는 장소가 된다. 결국 멧비둘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와 각종 포유류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는 활주로 주변 잔디면에 풀이 열매를 맺기 전에 늘 삭초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배수로 역시 비가 오기 전 미리 정리를 해 놓아 우기에 많은 비가 내리더라도 배수가 잘 되게 하여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둘기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새이다.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고 구약성경에 보면 하느님께서 물로 세상을 멸망하려 하실 때 노아의 방주에서 내어 보낸 비둘기가 생명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나뭇잎을 물고 와서 노아의 가족에게 희망을 보여준 새이기도 하다. 지금도 공원주변에는 언제나 많은 비둘기들이 모여서 먹기도 먹고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유롭고 평화스러워 보인다. 이렇게 우리들 근처에서 늘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비둘기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주고 번식할 공간도 제공해 주어 보호를 하고 있어서 사람이 나타나면 가까이 다가와 먹이를 달라고 조르기도 하며 애교를 부리지만 야생에 서식하는 멧비둘기는 사정이 다르다. 스스로 먹이를 구

해야 하고 둥지를 지어야 하며 새끼를 기르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역적 같은 생활력이 있다.

멧비둘기의 둥지를 야생에서 발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워낙 허술하게 지어놓은 이유도 있겠지만 위장이 잘 되어 있어 발견이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의 변화를 그 어떤 새보다도 잘 받아들이며 이용하는 지혜로운 새이다. 그 둥지가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 놓았는지 몇 년이 지나도 원형이 그대로 유지될 정도다. 또한 새끼가 태어나면 주변의 나무와 둥지 색과 같은 색을 띠고 있어서 발견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야생 비둘기가 천적에게 피해를 입지 않고 많이 번식하고 있다. 보기에 아주 연약하게 생긴 이 새가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는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으며 친숙한 이 새를 보면 생각보다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주변에서 비행에 방해가 된다고 모두 없애는 것보다는 활주로 주변의 배수로 등 숲의 정리를 통해서 멧비둘기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새들도 보호하고 비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퇴치 방법으로 멧비둘기와 공존하기를 조심스레 기원한다. ㉮



이끼와 나무에 지었듯 동굴 나뭇잎이 떨어진 겨울에야 발견을 할 수 있다.



비둘기들이 겨울에 추위를 피하는 곳으로 좋아하는 대나무 숲



소나무 가지에 만들어 놓은 멧비둘기 둥지. 이를 봄에는 이렇게 위장이 가능한 소나무를 선호한다.

3월의 공군 역사

자료정리 군역사기록관리단

- | | |
|--------|---------------------------------|
| 3월 1일 | ● 육군 방공포 인수 및 제88방공포전대 창설(1988) |
| 3월 15일 | ● 주월(駐越) 한국공군지원단 철수(1973) |
| 3월 27일 | ● T-41 항공기 인수(1972) |
| 3월 28일 | ● RC-800G 항공기 인수(2001) |
| 3월 30일 | ● T-38A 고등훈련기 인수(1999) |
| 3월 31일 | ● C-54D 수송기 퇴역(1992) |

주월(駐越) 한국공군지원단 임무완료 후 귀국(1973)

우리 공군은 1965년 1월 안화선 소령을 최초로 파월한 이래, 1966년 후반에는 전술항공지원반과 공수지원반 요원을 파월하여 주월 한국군의 전투지원과 수송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하지만 월남전이 갈수록 격화되고 이에 따른 공군의 지원범위가 확장되면서 일원화된 지휘권 아래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1일부터 공군지원단을 창설하였다.

예하에 전술공중지원대, 비행대, 수송지원대 등 솔밭처럼 탄탄한 편제를 갖춘 공군지원단은 1973년 3월 철수시까지 전방공중통제지원(1,960회), 인원(34만여 명) 및 각종 물자수송(5,480톤), 주월 한국군에 대한 일일기상지원(19,050회) 등의 임무를 제반환경의 불비한 악조건하에서도 필승의 신념을 바탕으로 빈틈없이 완수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이역만리 월남땅에 드높였다.



한국공군지원단 개선 환영식에 참가한 파월 장병들의 모습(1973. 3. 15.)

육군 방공포 인수 및 제88방공포전대 창설(1988)

1987년 9월, 군무회의의 석상에서 국방부장관이 공군기지에 배치된 육군 대공포 전환 방안을 지시함에 따라 동년 12월 30일, 육군 대공포 소속전환이 결정되었고 우리 공군은 1988년 3월 1일 공군기지에 배치된 육군 대공포를 인수하여, 동년 11월 1일 작전사령부 직할로 제88방공포전대를 창설하였다.

공군작전계획 제123호(화성계획)에 의거 3개 대대와 1개 정비대로 편성한 제88방공포전대는 기지 대공방어 전력 지휘관리, 전투준비태세 유지, 작전운용 요원 교육 훈련 및 평가, 방공전술/전기개발 및 교리발전, 화포 정비능력 개발 등의 부대임무를 부여받았으며, 전대본부는 수원기지에 두었다. 초대 전대장에 진정길 대령이 보임한 88방공포전대는 공군으로 전군(轉軍)하는 육군 방공포병 전력과 통합하여 공군방공포병사령부로 개편이 결정되면서 1991년 6월 28일 수원기지에서 해편식을 거행하였다. ㉠



1988년 11월 1일 수원기지에서 한주석 작전사령관 임석하에 제88방공포전대 창설식을 거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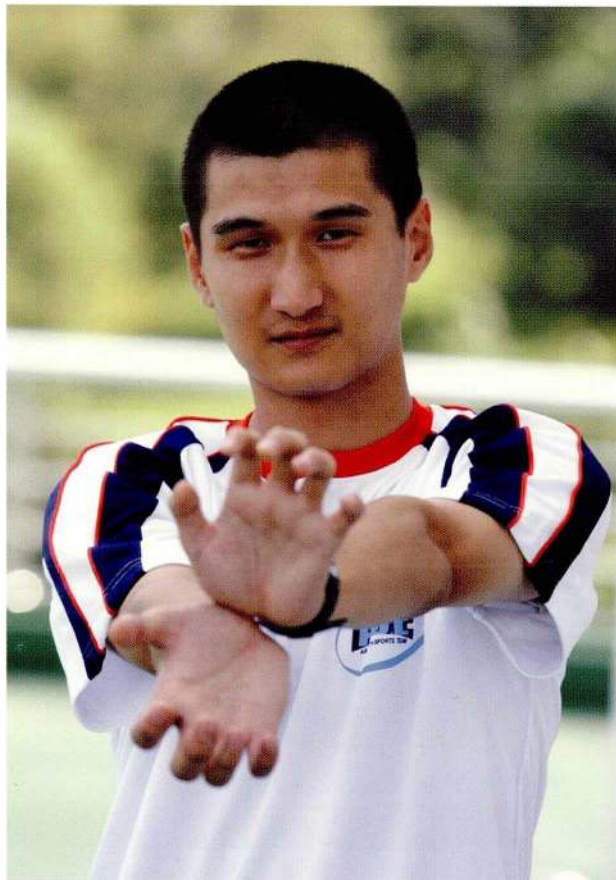
중용^{中庸}의 도^道를 지키는 명품토스

박대만(공군). 2월 4일(월) 제14차 MSL 서바이버 토너먼트 예선 18조.
고강민(KTF), 김동현(MBCgame), 오충훈(SKT) 꺾고 본선 진출.

박대만(공군). 2월 5일(화) 스타챌린지 2008 시즌 1 예선 E조.
홍진호(KTF), 김윤환(STX), 김택인(eSTRO) 누르고 본선 진출.



글 대위(전) 유선의 | 방공포병사령부



지난 시즌 스타리그의 화두가 양대 스타리그 전승통과의 조병세(CJ)였다면, 이번 시즌 최고의 화제는 단연, 군인의 신분으로 양대 스타리그를 뚫어버린 박대만이다. 공군에 입대하고 처음 맞은 지난 시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프로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는 입대 전 한빛시절 대장(DaezanG[GnH])이라는 아이디로 화려한 조합의 명품저그전과 테란전 7전전승의 포스를 자랑했던, 2006 곰TV MSL 8강에 빛나는 뛰어난 선수다.

대장 부활의 전조(前兆)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대만 본인은 지난 시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초반 우세를 점하고도 아쉽게 패했던 '스피릿' 박지호(MBCgame, 프로토스)와의 경기를 꼽았지만, 나의 뇌리에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경기는 지난 10월 31일 역시 MBCgame과의 경기 1세트에서 서경중(MBCgame, 저그)을 공속업 질럿으로 밀어버린 경기였다.

그 경기에서 박대만은 포지를 먼저 짓고 게이트웨이 2개를 소환한 뒤 소수의 캐논으로 상대방의 저글링 공격에 대비했다. 이후 빠르게 지상병력의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올려준 뒤 꾸준히 질럿을 생산했다. 4기의 질럿과 1기의 프로브를

동원한 앞마당 찌르기. 서경중은 저글링을 총동원해 수비에 나섰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질럿의 공업이 완료되고 추가 질럿을 확보한 박대만의 그 찌르기에 희생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된다. 1차 공격에 나섰던 질럿들은 상대방의 해처리를 깨기 전에 모두 잡혔지만, 이후 앞선 물량과 테크로 속업까지 완료된 질럿과 아칸이 동원된 2차 공격으로 결국 GG를 받아낸다. 공속업된 질럿을 저글링의 '쥐약'이라고 표현했던 김태형 해설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등장한 박대만의 아칸을 저글링의 '재앙'이라며 절규했고, 그 때 팬들은 2006년도 화려했던 박대만의 저그전 조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왜 명품인가

지난 1월호 이주영 편에서 밝혔듯이 프로게이머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기 마련이고 가난한 스타일의 게임은 '저절하다'는 평가를, 부자 스타일의 경기는 '물량이 쏟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때에 따라 다르지만 굳이 따지자면 박대만은 처절한 토스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물량이 잘 나오는 토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고 많은 물량토스 중에 왜 유독 박대만의 경기에만 '명품'이라는 평가가 따르게 된 것일까?

누가, 어떤 이유로 처음에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박대만의 경기에는 확실히 뭔가 다른 것이 있다. 나름 스타경력 10년차인 내가 보기에, 박대만의 테란전 그리고 저그전은 조합의 미덕과 업그레이드의 조화가 다른 선수들의 경기보다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이 아닐까 싶다. 비록 아쉽게 패하기는 했지만 언젠가 '본좌' 마재운(CJ)과의 경기에서도 8파일런, 9가스, 10게이트로 가스와 게이트 타이밍을 뒤집은 뒤, 드라군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무시하고 게이트 팍팍 늘려서(사업과 스톰은 나중에 동시에 눌러주고) 다수 질럿과 엄청난 물량으로 '토스의 재앙'이라던 저그 3해처리를 패배 목전까지 위협했던 경기 역시 명품의 진면목을 보여준 승부였다.

사실 요사이 저그전에서는 더블넥이 대세라 아무나(심지어 나 같은 아마추어까지도) 무조건 원포지 더블을 한다.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질렘을 가든 커세어리버(닥템)로 가든 상대방의 운영에 맞추어 경기를 더 용이하게 풀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가 패스트 뮤탈이나 4해처리 노레어

무작정 저글링 이런 도박 빌드를 선택한다면 절대 막을 수가 없고, 한 타이밍(질럿 공속업 타이밍) 싸움에서 피해를 못 주고 하이브 갈 시간을 주면 후반에 가서 밀리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더블넥을 하는 사람, 무조건 더블넥을 안 하는 사람은 고수가 될 수 없다. 고수라면 정찰을 잘 하고 미리 상대방의 전략을 예측해서 그에 따라 전략을 결정해야 하고,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을 조합과 업그레이드, 유닛의 컨트롤 등을 통해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허영만의 '타짜' 4부에 등장하는 데이비드 김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포커판에서 잃는 사람은 네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는 소위 뺑카만 치는 사람이고, 둘째는 뺑카를 집요하게 잡아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셋째는 뺑카를 아예 안치는 사람이고, 넷째는 안전하게만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따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중용(中庸)의 도(道)를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대답한다. 스타도 마찬가지다. 일꾼과 공격유닛 생산, 확장과 공격, 업그레이드와 물량 등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한 가지에 치중해서는 고수가 되기 어렵고 그 중용의 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박대만의 토스는 그 중용의 도를 잘 지켜왔기 때문에 '명품'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온 새해

같은 팀 선수들끼리는 아무래도 스타일이 비슷한 면이 많다. 왜냐하면, 함께 연습하면서 좋은 전략이나 습관이 있으면 이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박대만은 그런 면에서 <공군 ACE>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울 점이 많고, 팀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박대만의 갈 길이 멀지만, 프로의 칼날은 자주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는 법. 제 실력을 찾아가는 박대만의 육일승 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크다.

모든 경기에, 특히 테란전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는데 <공군 ACE>에 와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응원해주는 공군 장병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 2008년 전기리그를 목표로 팀원 전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화달라진 모습을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박대만의 각오가 다분하다. 박대만의 양대 스타리그 진출이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찾아온 새해, 새로운 감독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008년을 맞는 <공군 ACE>의 도약을 기대해 본다. 



가업슨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 방포사 기본권 상담관의 편지

✉ 최민정 | 방공포병사령부 장병기본권 상담관

사진 방공포병사령부 정훈공보실

‘가업슨 내 사랑 빈 집에 갇혔네’

기형도의 이 시 구절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섰지만 정작 시적 자아는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키고 사랑할 본질적 가치는 외부세계에 존재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밀실로 고립되어 버리는 누군가의 ‘우울’을 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고도라는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그 구원자는 오지 않고, 그 존재의 실체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고립과 절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성처럼 그 존재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은 채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하는 극도의 부조리.

기형도의 그 시 구절을 보면서 언젠가 수십 년 동안 상담을 해 온 연세 많으신 상담가 한 분께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정말 늘 행복하게 보이고 자신감 있게 살아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상담의 공간 안에서는 모두 고민하고 번민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더군요. 지금까지 상담을 해오면서 예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걱정하고, 혹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스럽고 사적인 고민을 풀어놓을 때 지금처럼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도 나처럼 말 못할 사정 한두 가지 쬼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담관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한결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내가 이 길에 서있는 이유

저는 대학교 재학 시절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 어렵게 상담실 문을 두드려본 것이 계기가 되어 상담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상담을 받던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러한 경험이 제 인생에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도 나처럼 말 못할 사정 한두 가지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상담관의 얼굴을 쳐다보기가 한결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상담을 끝낸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 정신과에서 1년 동안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수련을 받았고, 이후 보건소 안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정신건강 관련 상담업무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기본권 전문 상담관 제도가 처음 시행되어 아직은 낯설고 생소한 이곳 방공포병사령부에 와서 상담관으로 새로운 첫발을 내디디면서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앞서 언급한 '높고 부담스러운 상담실의 벽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험한 것, 배우고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이곳 상담실이 큰 마음 먹고 들어와야 하는 곳이 아닌, 마음이 힘들 때 잠시 들러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몸 > 마음??

우리사회는 마음이나 정신적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하거나 학업을 등한시하게 되었을 때 '심장이 안 좋아서'라고 말하면 모두들 그러려니 이해해주지만, '우울해서'라고 말하면 납득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쉽게 생각하고 의지나 정신력이 약하다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어떤 일에 '우울해서'라는 이유를 잘 대지 않습니다. 내 정신력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괴로워서 절군을 하게 되더라도 신체적인 변명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픔의 근원, 병의 근원은 몸이나 마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체력이 내 활동량을 감당하지 못할 때 피로가 오고 병이 나는 것과 같이, 스트레스나 정신적 긴장이 지나치면 마음과 정신에도 탈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도 뇌라는 신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몸의 불편함이나 마음과 정신의 불편함이나 생기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저를 비롯한 상담가들은 내담자들이 고민하는 어떤 문제

에 대해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혹은 옳고 그르다고 선분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거나 조금 더 나은 적응방식을 찾는 것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와 친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한계가 있을지언정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를 만나서 상의한다는 기분으로 저를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실로 오세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가엾은 내 사랑' 우리 방공포병사령부 장병 여러분, 개인적 고민이나 갈등, 아니면 군대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상담 요청이 가능합니다. 벽이 낮은, 아니 벽이 없는 저희 상담실로 오세요. ☎



방공포병사령부 상담실 위치 : 방공포병사령부 분청 1층
 군 전 화 : 930-1294
 일반전화 : 031-669-1294
 휴 대 폰 : 011-9923-5873
 이 메 일 : wawaminjung@hanmail.net

우리는 공군의 무릎팍 도사!

- 편안한 카운슬러, 제11전투비행단의 '동료' 상담자들

글·사진 제11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대화기법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치는 동료상담자들

몇 해 전에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다. 마치 큰스님이 '툭'하고 중생들에게 던져 주는 화두(話頭)와 같은 문장이다.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쉽게 말할 수 없는 또는 숨기고 싶은 비밀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난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과연 그럴까? 애인에게라도, 부모님에게라도 웅얼거린 고민, 아픔이라면 더욱 감추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그 비밀들... 오래 간직 하면 병 난다. 예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던 동화의 주인공처럼 시원스레 말을 하며 제대로 속 풀이 하며 살아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과연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는 누구에게 말하며 속 풀이 해야 할까? 제11전투

비행단 장병들은 비밀을 '말하고' 싶을 때 부대의 무릎팍 도사인 '동료상담자'를 찾는다.

동료상담자 교육캠프

11전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병영문화 혁신의 일환으로 병사 간 자율적 상담 프로그램인 '동료상담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병들 사이에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 실시하던 면담제도 대부분이 간부가 중심이 되어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병사들의 리더인 으뜸병사들을 '동료상담자'로 양성, 병사들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동료상담자 리더인 문상철 소위의 멋진 신고식

동료상담자 교육캠프 소감문

이제야... (text continues in columns, partially obscured by the image and other text)

부대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우선 부대 내 심리학을 전공한 장교와 각 대대 으뜸병사 등 총 21명을 1차로 선정, 지난해 12월 경주의 한 펜션에서 민간 상담전문가의 진행 하에 '동료상담자 교육캠프'를 운영하여 '준 상담전문가'인 동료상담자로 육성하였다. 이후 매달마다 동료상담자와 민간 상담전문가가 만나 상담 사례발표 및 토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담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상담 사례 가운데 전문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는 민간 상담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가장 편안한 상담자는 바로 동료

동료상담자가 된 지 두 달, 새내기 상담자들이 동료 상담 중 느낀 소회를 들어보자. "지금까지는 부대의 병사들을 대표하는 으뜸병사로서 후임병과 대화할 때 일방적으로 조언이나 충고만 해주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동료상담자 교육을 통해 진정한 상담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말 참기가 쉽지 않네요. 특히 지쳐있을 때 많은 사람은요. 어휴..." 단 으뜸병사 김현주 병장(23세)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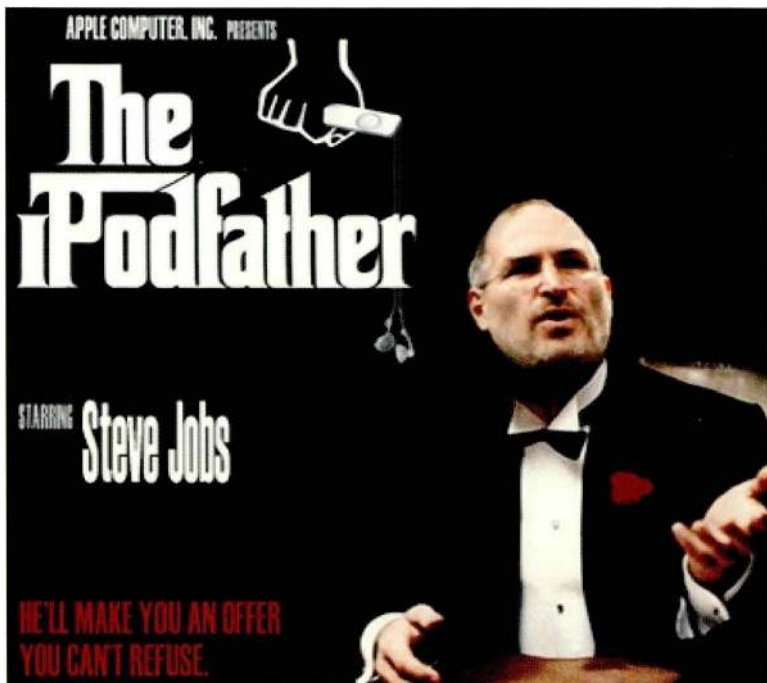
"한 번은 신병을 제 생활관으로 불러 상담을 시도했어요. 제 판에는 상담 분위기를 잡으려고 불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둘 사이에 촛불을 하나 켜고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이야기 해봐'라고 이야기 했죠. 그런데 신병은 병장이 혼자 불려서 불 끄고 켜려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바짝 얼어서는 시선도 못 마주치더군요. 그 것으로 그날 상담은 끝났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하고 있어요. 특히 후임들에게 과자를 사주면서 상담을 시도하면 더 잘 되더라고요"라며 무장대대 으뜸병사 김영훈 병장(22세)은 상담 중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가장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비슷한 신분이나, 연령대의 동료라는 점에서 착안된 동료상담자 프로그램은 일반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또래 상담자 제도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젊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상담자 교육을 진행한 대구 청소년 상담 센터 곽동민(39세) 선생님의 말이다.

동료상담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제11전투비행단장은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병 간 원활하지 못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영 내 각종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전비는 '동료상담자 프로그램'이 부대원 간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통해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비행단 건설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매년 2회 정기적으로 동료상담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4)



이미도

외화번역가 · 저술가 · 출판인

〈이미도의 등 푸른 할어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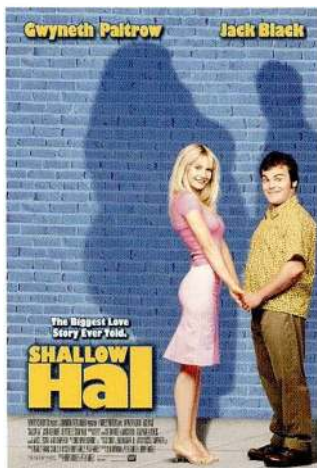
〈영화백개사전 영어백과사전〉 지음

그의 프레젠테이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육중한 러브스토리?!

남들의 눈에는 육중한 몸매로 보이는데 할(잭 블랙)에게만
은 초절정 S-라인 몸매로 비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 이
름은 로즈메리(귀네스 팰트로)! 로즈메리를 내세워 남성들
의 S-라인 판타지를 우화적으로 비튼 영화가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Shallow Hal)>이
지요. 패럴리 형제 감독이
만든 이 영화를 두고 미국
의 언론은 '가장 육중한
러브스토리(The Biggest Love
Story Ever Told)'라고 표현하
기도 했고요. 로즈메리
는 어떤 특별한 매력을
가졌기에 할에게만큼은
완벽한 몸매로 비치는 걸
까요?



‘로즈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역시 패럴리 형제 감독이 만들고, 카메론 디아즈가 주연한 영
화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가 있지요. 영어 제목은
'There Is Something About Mary' 이고요. 이 영어 제목을
비틀어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의 영어 제목을 'There Is
Something About Rosemary' 라고 패러디하였더라면 어땠
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여주인공 이름이 Rosemary이고, 로
즈메리에게도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요.

애플사 CEO의 아주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이자, TV 저널리스트로서
에미상을 수상하기도 한 카마인 갈로(Carmine Gallo)는 인터
넷판 <비즈니스위크(Businessweek)> 지면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의 기술'을 소개하였습니다. 애플사의 CEO인 스티브 잡스
의 '뭔가 아주 특별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모델로 삼아서
말이지요. '세계 최고의 창의적 경영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스티브 잡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맥월드 컨퍼런스 & 전시회(Macworld Conference & Expo)' (2008년 1월 15일)의 기조연설에서 이런 표현으로 연설의 말문을 열었더랬지요.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today.”

초등학생 정도만 돼도 알만 한 단어들로 구성된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today' 는 무슨 뜻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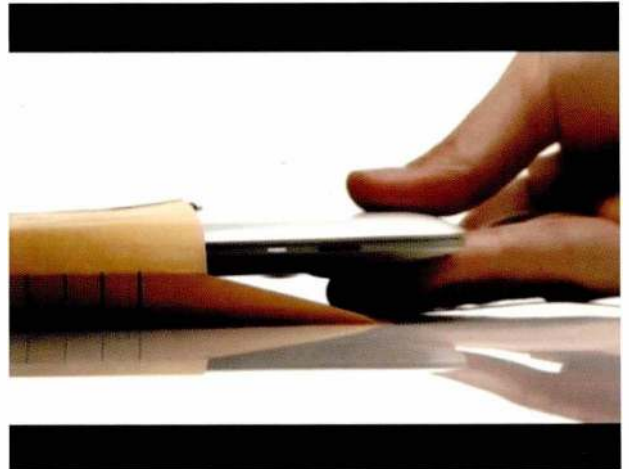
be in the air의 특별한 의미

로맨틱 코미디 <리브 액츄얼리>의 영어 제목은 'Love Actually' 를 음차(phonetic translation)한 것이지요. 기획단계의 가제목은 'Love Actually Is All Around' 이고요. all around는 '어디에나, 온 사방에' 라는 뜻이니까 '사랑은 어디에나 있다' 는 의미입니다. 팝송 제목 'Love Is In The Air' 와 비슷한 의미이고요. 그렇다면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today' 의 뜻은 '뭔가 특별한 것은 오늘 어디에나 있다' 일까요? 아니지요. 스티브 잡스의 이 의미심장한 말의 뜻을 이해하려면 먼저 관용표현인 'be in the air' 의 뜻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군요. 'be in the air' 는 'be going to happen very soon' 의 뜻입니다. 'Change is in the air' 처럼 표현하면 '곧 변화가 일어날 거야' 의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Something is in the air' 라고 하면 '뭔가 곧 새 소식이 나올 거야' 또는 '뭔가 특별한 일이 곧 일어날 거야' 의 뜻이지요. 그렇다면 왜 스티브 잡스는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의 형태와 'Something is in the air' 의 형태를 결합하여 'There is something in the air today' 라고 하였을까요?

초소형 박피 컴퓨터의 탄생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컴퓨터 관련 전시회 때 회사에서 사용하는 누런 서류용 봉투(manila interoffice envelope)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청중을 향해 그가 봉지에서 꺼낸 것은 초소형 박피(0.41~1.93cm) 신상품 컴퓨터이었지요. 신제품 노트북이 얼마나 얇고 가벼운지를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언

출한 것일 텐데요, 이 노트북의 이름이 바로 MacBook Air 입니다. 그가 왜 'There is something is in the air today' 라고 하였는지 이제 분명해졌죠? '여러분, 오늘 제가 희소식을 드리지요. MacBook Air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랍니다. 기조연설 도입부에서부터 청중의 호기심을 확 사로잡기 위한 테마를 제시할 의도로 말이지요.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10계명

카마인 갈로가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모델로 제시한, 스티브 잡스 방식 프레젠테이션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참고해보면 어떨지요?

1. Set the theme! 주제를 제시하라!
2. Demonstrate enthusiasm! 열정을 드러내라!
3. Provide an outline! 윤곽을 제시하라!
4. Make numbers meaningful! 숫자에 의미를 담아라!
5. Try for an unforgettable moment!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라!
6. Create visual slides! 시각적 효과의 슬라이드를 만들라!
7. Give them a show! 쇼를 제공하라!
8.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작은 실수에 당황하지 말라!
9. Sell the benefit! 이점을 팔아라!
10. Rehearse, rehearse, rehearse!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라! ㉠



황금석을 던져버린 청년

그림 김영은

© 일일생명교육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편지』 中

먼 옛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화재로 모든 책들이 소실(燒失)되었는데 유일하게 한 권의 책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청년이 무심코 그 책을 읽다가 '황금석'이라는 마법의 돌이 흑해 연안에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황금석은 어떠한 금속도 모두 순금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이 신비한 돌을 찾으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이 돌의 생김새는 어느 돌과 다름없이 만 손으로 만져보면 따뜻한 점이 닿았습니다.

마침내 흑해 연안에 도착한 청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황금석'을 찾기 위해 해안에 널려 있는 무수히 많은 돌을 줍고 던지고 줍고 던지면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했고 그러는 사이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4년째 되던 어느 날, 청년은 어느 때처럼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은근하게 전해오는 따뜻한 느낌이 바로 지금껏 찾고 있던 마법의 돌인 '황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만 오랫동안 해오던 버릇대로 손에 쥐었던 돌을 바다에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청년은 3년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 버린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것이 정말로 진짜 황금석인지도 몰라'라는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돌이 지닌 희미한 온기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앞의 이야기 속의 청년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자신이 계속했던 목적을 잊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늘 그랬잖아, 더 좋은 게 있잖아?'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소망하는 '황금석'은 저 깊은 바닷속에 있을 것입니다.



서양음악, 통째로 살펴보기_2

✎ 정홍래 | 서울대학교 음악학 석사

지난 시간(1월호)에 이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렸을 적에 자주 부르던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기억나세요? 이것이 바로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모차르트의 피아노 음악이지요. 이 노래의 원래 제목은 〈아, 엄마에게 말할게요(Ah, vous dirai-je, Maman) 주제에 의한 변주곡, K. 265〉(1781~'82)입니다. 모차르트가 어렸을 적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알게 된 선율로 작곡을 하고, 그 선율의 이름을 제목에 붙인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작은 별 주제에 의한 변주곡〉

위의 악보에서 보듯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가볍고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아하고 기품이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요. 마치 〈비엔나 왈츠〉처럼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으레 ‘제야의 종’ 타종식을 하듯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음악인협회(Musikverein)에서는 〈신년음악회〉가 열립니다. ‘왈츠의 왕’인 요한 슈트라우스 2세(Johann Strauss II, 1825~'99)의 음악에 맞추어 왈츠를 추기도 하지요. 고급 텍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왈츠를 추는 귀족 취향의 모습이 바로 비엔나 느낌을 가진 모차르트 음악의 특징이지요.

조화롭고 명확한, 고전주의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곡가 하이든과 베토벤도 이곳 비엔나에서 활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비엔나는 모든 예술이 융성했던 예술의 메카였기 때문입



신년음악회



신년음악회가 열리는 Musikverein

니다. 이와 같이, 비엔나를 중심으로 융성한 고전주의 음악(1750~1820)의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낙천적이고 모범적인 〈하이든〉(Joseph Haydn, 1732~1809), 절대적 음악성을 지닌 신동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 1756~'91), 불굴의 정신을 지닌 정열적인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을 들 수 있습니다(이들을 줄여서 ‘하모베’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이러한 고전주의 음악은 〈균형과 조화, 명료함〉의 특징을 갖습니다. 이것은 ‘이성’을 중시하는 시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시민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였으니까요. 〈그림 1〉은 다비드(J. David, 1748~1825)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1784~'85)로, 다비드는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미술가입니다(미술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주의와 구분하기 위해 ‘신’ 고전주의라고 합니다). 호라티우스 가문의 세 형제가 조

국의 전쟁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바치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는 비장한 분위기의 그림입니다만, 상당히 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명확한 윤곽과 균형 있는 구도 때문이지요. 미술의 <신고전주의>처럼, 음악의 <고전주의>도 균형 잡히고, 조화롭고, 명확한 형식을 가진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그림 2.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낭만주의

<그림 2>를 보세요. 들라크루아(F. Delacroix, 1798~1863)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1830)입니다. 혁명의 기치를 높게 든 여신이 자유를 향해 민중을 이끌고 있습니다. 선봉에 나선 여신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동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자유로운 색채, 힘찬 움직임, 동적인 구성에서 <낭만주의>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 중시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낭만주의> 음악도 화려한 음색과 화성, 보다 자유로운 형식과 박자를 갖는다는 점에서 고전주의와는 대조되지요. 낭만주의가 본래 고전주의의 <질서와 형식>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되었으니까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치아키



듀오로 연주하는 노다메

낭만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음악으로 피아노 협주곡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네요. 요즈음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만들어진 일본의 애니메이션이자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가 장안의 화제지요. <노다메 칸타빌레>는 천재 음악가인 남자 주인공 <치아키>와 산만하지만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노다메>의 이야기입니다. 치아키가 세계적인 지휘자 슈트레제가 이끄는 A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던 곡은 라흐마니노프(Sergei Rachmaninoff, 1873~1943)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는 서정적인 선율, 화려한 음색, 거대한 스케일의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러시아 출신의 작곡가입니다. 치아키의 성공적인 협연도 기억에 남지만, 협연 이후에 노다메가 방에만 틀어박혀 연습하던 모습과 노다메와 치아키가 연습실에서 함께 듀오로 연주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지요.

이와 같이 낭만주의 시대의 피아노 협주곡은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색과 피아노 연주자의 현란한 테크닉이 서정적인 선율과 조화를 이루어 연주자와 청중을 심취하게 만드는 음악이지요. 물론 작곡가도 작곡할 때 그러한 감정을 가졌겠지요. 단순명료하면서도 맑고 투명한 음색을 지닌 모차르트의 음악과는 참 다릅니다. 또 고전주의 작곡가들이 <하모베>로 압축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낭만주의 작곡가들은 수직으로 상당히 많아서 한두 명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다양한 경향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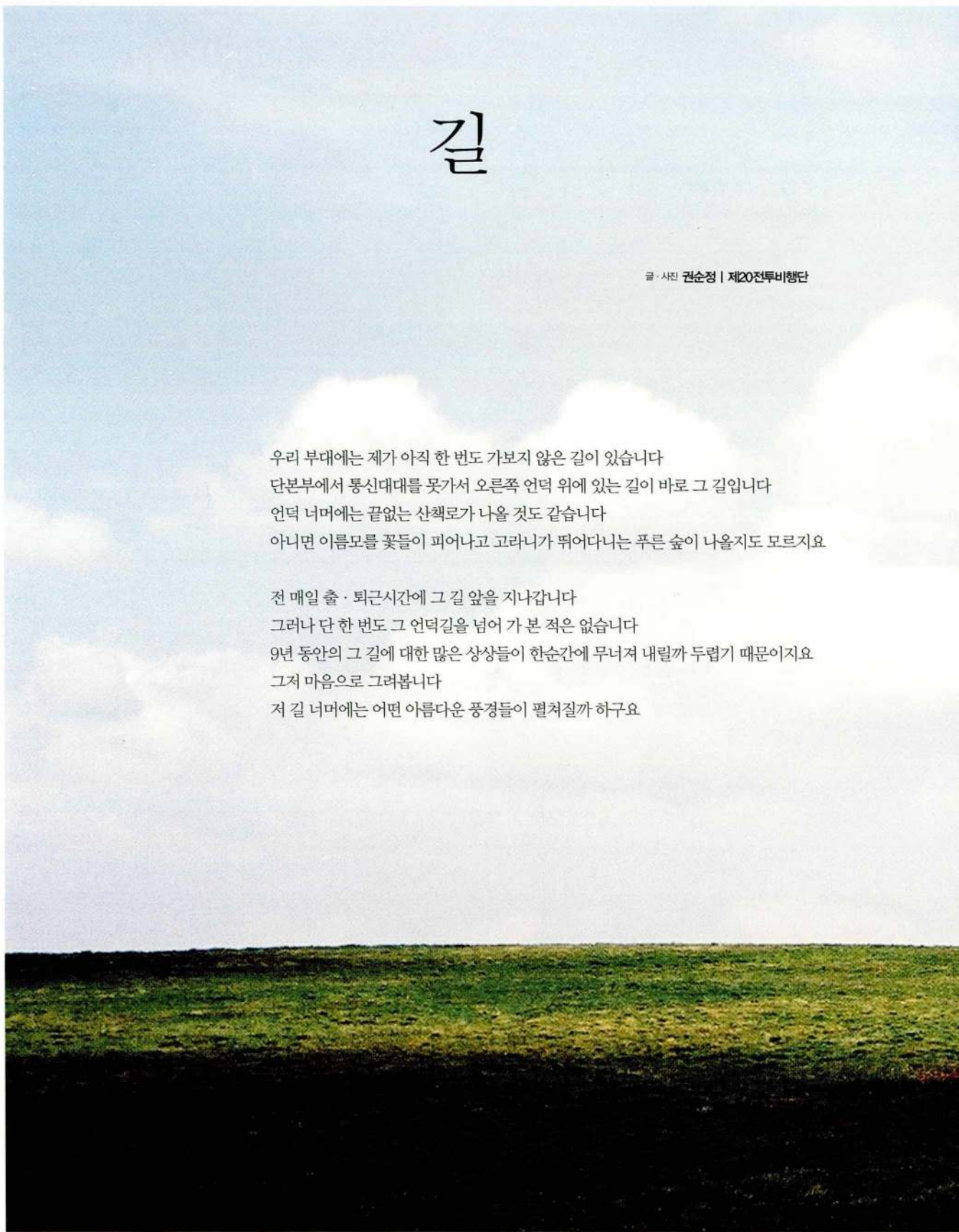
오늘은 서로 너무나 다른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음악을 살펴해보았습니다. 바흐와 헨델에서부터 시작된 가계도가 넓게 펼쳐지고 있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시대의 음악인 <현대음악>에 대해 살펴보지요. 

길

글·사진 권순정 | 제20전투비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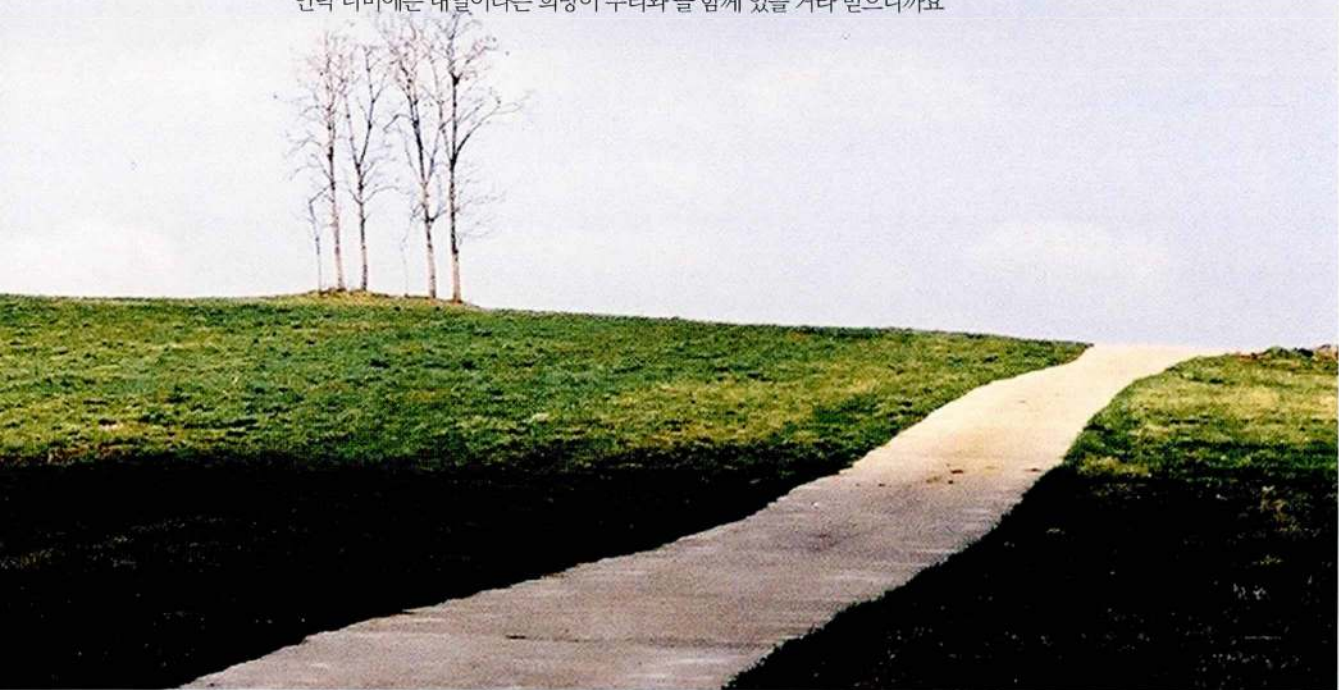
우리 부대에는 제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단본부에서 통신대대를 못가서 오른쪽 언덕 위에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언덕 너머에는 끝없는 산책로가 나올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이름모를 꽃들이 피어나고 고라니가 뛰어다니는 푸른 숲이 나올지도 모르지요

전 매일 출·퇴근시간에 그 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언덕길을 넘어 가 본 적은 없습니다
9년 동안의 그 길에 대한 많은 상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까 두렵기 때문이지요
그저 마음으로 그려봅니다
저 길 너머에는 어떤 아름다운 풍경들이 펼쳐질까 하구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길을 만납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길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야 하는 길
잘못 들어선 길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길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아주 멀고도 먼 인생이라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언덕길이지만
가끔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언덕 너머에는 내일이라는 희망이 우리와 늘 함께 있을 거라 믿으니까요



PREVIEW

객원기자 이예진

뮤지컬 한 판 승부, 카사노바 VS 싱글녀

카사노바와 싱글녀 중 강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 둘이 각각 뮤지컬 주인공이 됐다. 뮤지컬 〈나인〉과 〈싱글즈〉가 바로 그것. 둘 다 영화를 뮤지컬로 다룬 '무비컬'이라는 공통점을 빼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나 노래와 춤과 함께라면 두 가지 삶 모두가 충분히 매력적이다. 카사노바의 숨은 매력, 싱글즈의 또 다른 즐거움을 「공군」 프리뷰가 함께했다.

한 남자를 둘러싼 열 다섯 명의 여인들! 2008년 황정민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 뮤지컬 〈나인〉

〈나인〉은 이탈리아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자전적 영화 '8과 1/2'을 뮤지컬로 만들었다. 198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고 그 해 토니상 10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최우수 뮤지컬상 등 총 5대 부문을 석권했다. 2003년 리바이벌 공연에서는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주인공으로 활약해 큰 인기를 얻었다.

주인공 귀도 콘티니는 극중 이탈리아 최고의 영화감독으로 예술가로서 스스로 한계에 다다랐음에 괴로워한다. 이 과정에서 오로지 그에게만 말을 걸어오는 현재와 과거, 상상 속에서 15명의 여인들이 나온다. 그러나 주인공이 15명의 여인들과 사랑을 나눈다고 너무 부러워하지는 말 것! 이번 작품에서 관객은 머리 속 상상과 현실이 뒤얹힌 몽환적인 상황과 내면의 감정을 세세하게 전달하는 한 남자의 슬픈 독백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백을 전하는 남자, 황정민. 현재 스크린 최고의 스타인 그가 1995년 뮤지컬 '지하철 1호선'으로 데뷔한 뮤지컬 배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뮤지컬 출연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진다. "굉장히 설레고 흥분된다. 내가 선택한 작품인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한 만큼 영화 속에서 못다 본 그의 열정이 기대된다.

공연 : 〈서울〉 1월 22일~3월 2일 호암아트홀

〈부산〉 3월 15일~1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대구〉 3월 7일~9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전〉 3월 29일~30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홈페이지 : <http://www.musicalnine.com>

당당한 싱글들을 위한 유쾌한 지침서 아리송한 나이 스물 아홉의 모든 것, 뮤지컬 〈싱글즈〉

손호영과 이종혁, 김지우. 아니 이들이 '싱글'이라고? 실제 이들이 싱글인지 아닌지는 이들이 하는 연기를 통해 판단하자. 이들은 각각 행복할 것만 같았던 29살의 생일에 3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채인 레스토랑 매니저 나란, 이런 나란에게 첫눈에 반해 슬금슬금 그녀에게 작업을 시도하는 증권맨 박수현을 연기한다.

용돈 대신 월급이란 걸 받으면서 까먹은 말 '굿모닝'. 어느새 늘어난 주름살과 알뜰하게 자리잡은 새치머리, 전화는 생활의 필수품이고 언제라도 전화할 수 있는 여자친구는 인생의 필수품이라는 스물 아홉. 새 직장에 적응할 무렵, 이들이 알아가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아찔한 줄타기를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침서에 동참해 보시기를.

감미로운 노래에 친숙한 배우들이 연기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 뮤지컬 〈싱글즈〉. 한국뮤지컬대상 작품상 수상 공연작인 만큼 이십대의 끝자락을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낼지, 열정과 고민으로 똬똬 뭉친 당당한 싱글들을 만나보자.

공연 : 〈부산〉 3월 1일~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진 주〉 5월 17일~18일 경남문화예술회관

〈태백〉 4월 26일~27일 태백예술회관

〈의정부〉 5월 20일~21일 의정부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 <http://town.cyworld.com/aga90>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가입 및 후원안내

■ 자원봉사 활동분야

- 장비 및 시설 지원 활동
- 교육활동
 - 항공이론 및 역사
 - 항공기능(RC, 열기구, 행 · 패러글라이더 등)
 - 조종사 비행 경험담
 - 레크리에이션
 - 해양훈련
 - 정신교육(심성수련)
- 행사 인력 지원
- 기타 사회 봉사활동

■ 자원봉사 활동지역 : 전국

■ 자원봉사단 모집기간 : 수시

■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이 되려면

항공소년단 홈페이지(www.yfk.or.kr)에서 '항공소년단 자원봉사단' 회원가입 → 활동이 있을 시 이메일 또는 개인 연락처로 연락 → 봉사활동



■ 후원금 입금 계좌

- 우리은행 1005-300-996245(예금주: 한국항공소년단)
- ※ 기부된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항공소년단
YOUNG FALCONS OF KOREA

박현모 지음

세종처럼

공공경영 강성구 | 공공본부 비서실

세종처럼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
박현모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까지의 히딩크를 생각하면 참 안쓰럽다. 말이 통하나, 선수층이 두텁기를 하나, 기존 대표 선수들도 실력보다는 계보에 의해서 선발되어 있는 듯하고, 다른 나라와 A매치 게임을 해보면 5:0으로 지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딩크는 짧은 시간에 한국 선수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계보를 초월한 실력 위주의 선수구성과 우리 선수들에게 맞는 다양한 작전개념 및 세트플레이를 개발하여 급기야 한국팀을 4강까지 올라가게 했다.

조선의 임금 중 히딩크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성공을 거둔 군왕은 누구일까? 아마도 '세종'이 아닐까 싶다. 조부 이성계가 무능한 고려왕조를 치고 조선을 세운 지 채 30년이 안 되는 때 임금의 자리에 오른 세종은 여러 가지로 히딩크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자가 아닌 3남 세종이 왕이 되기까지 거쳤을 복잡한 과정과 불안정한 정치기반은 차치하고라도 당시 세종은 극심한人材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웬만큼 똑똑한 사람들은 망해버린 고려왕조에 대한 丹心을 버리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고 조선왕조로 편입되어 있던 인재들도 아버지 이방원이 왕이 되기 위해 별인 1, 2차 왕자의 난에 연루되어 발목이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시대에 황희, 맹사성, 변계량, 허조, 정인지, 김종서, 장영실, 신숙주, 성삼문 등 조선 전 시대를 두고 보아도 견줄만한 팀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수준의 신하들로 '세종사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세종은 인재를 발굴만 한 것이 아니라 키우고 보호했기 때문이다. 그는 신하들의 단점과 장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활용하여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려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이 없었다면 수뢰와 간통 혐의로 발이 묶인 황희는

재기의 기회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고, 탁월한 식견과 지혜로 조선 최고의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황희의 명성은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이다.

세종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각각의 악기가 자기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 해주었을 뿐인지 모른다. 그것은 그가 악기를 구별할 수 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아노주자에게 복소리를 내라고 하고 바이올리니스트에게 트럼펫소리를 강요하지 않는 것은 상식이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혹은 일상에서) 이렇게 상식이 부족한 지휘자(리더)들을 생각보다 많이 목도하게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휘자가 자신의 강요에 의해 피아노주자가 억지로 내주는 복소리 흉내를 듣고 복소리라고 굳게 믿으며 만족해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세종은 탁월한 청음(聽音) 능력을 가진 음악의 달인이 화음을 조합해 내는 것처럼 신하들의 능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다. 그는 서로 다른 관점으로 충돌되는 신하들의 의견이 촉매제인 자신의 조율작용에 따라 더욱 단단한 합금처럼 새롭게 거듭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신하들을 질책함으로써 왕에게 이르는 言路를 완전히 개방하였다. 왕 앞에서 목청을 높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는 신하가 있었다는 기록을 보아도 그가 얼마나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만들고 스스로의 역할을 규제했는지 알 수 있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은 지금 우리 공공이 추구하고 있는 조직문화의 주요 방편이다. 또한 이에 걸맞는 리더십의 출현 역시 절실한 시점이다.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군 조직에서 제대로 된 리더가 되고 싶다면 꼭 한 번은 보아야 할 책이다. 좋은 책이다.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월간 공군 편집팀

3 2 1 - 9 2 9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장병 독자 엽서

보내는 사람

성명: _____

주소: _____

□□□□ - □□□□

공군체송망을
이용해 주세요

수신: 참모총장

참조: 정책홍보실장(문홍과장)

발신:

321-929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501군사우체국 사서함 310호 6295, 02) 506-6295



-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월간 「공군」은 공군을 사랑하는
모두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더 나은 「공군」
제작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됩니다.

- 이번 호 내용 중 가장 흥미있게 읽었던 글은?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취재 대상이나 기획물을 적어주세요.

-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퀴즈정답

1.

2.

3.



Quiz

월간 「공군」 3월호를 잘 읽고 문제를 풀어 독자퀴즈 엽서 뒷면에 답해주세요.
정답엽서 마감일 : 3월 20일까지

1.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최상의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이 중 온·오프라인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다수의 하위체계가 통합된 하나의 웹기반 체계를 일컫는 말은 무엇인가?

공군 □□□□ (Air Force Learning Portal)

2. 공군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로 올해 최초로 15명의 여학생이 입학하며, 민주시민을 양성함과 동시에 최고의 항공전문인력을 교육하는 이 학교의 명칭은?

3. 30주년을 맞는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의 새로운 명칭은?
(뒤표지 참조)

3월호 퀴즈 당첨자께서는 공군홍보책자와 DVD를 보내드립니다.



2월호 독자퀴즈 정답 및 당첨자

정답

1. 항공우주의료원
2. 안성찬 소령
3. 양수장 관리병

당첨자

경기도 남양주시 성한용
경기도 용인시 민경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박소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은영
전라북도 익산시 박현태
인천광역시 부평구 홍성덕
전라남도 순천시 정 호

〈공군지 독자들을 필자로 모읍니다〉

보내실 곳 :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10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월간 「공군」 담당

(우편번호 321-929)

이메일 : afzine@airforce.mil.kr(인터넷)

sjy0402@af.mil(인트라넷)

전화번호 : 02-506-6295/042-552-6295



모형항공기대회 30모아 年주세요

공군참모총장배

Space Challenge 2008

모형항공기대회 30회를 맞아 그동안 공군과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추억을 모아 「항공우주군」을 향한 공군의 염원에 담고자 합니다.

◎ 기증품목

- 모형항공기대회 역사자료, 기념품, 이색사연 및 수기

◎ 접수기간 : '08. 3. 3(월) ~ 4. 4(금)

◎ 대 상 : 장병 및 일반시민 제한 없음

◎ 제출방법

1) 역사자료 및 기념품류 : 우편 및 직접배송 접수

(우편번호 321-929 충청남도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310호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2) 이색사연 및 수기 : 우편 및 인터넷 접수(aibuddy@paran.com)

◎ 기증시 제출내용

1) 해당 기증품 및 관련 설명자료

2) 제출자 인적사항(성명/나이/주소/직업/대회출전 및 수상 경력)

◎ 선정 기증자 사은내용

1) 선정 기증자 중 3명 내외 추천하여 대회본선 개시비용 참여

2) 최신훈 전투기 운영 부대 견학 및 공군체험 기회 제공

3) 사은품 증정

F-15K 혹은 T-50 고급 프라모델, 공군 기획사진집 「조국의 날개」,
2008 공군 에세이 사진집, 2008 공군홍보영상 및 블랙이글스 홍보영상 DVD, 문진 등

◎ 문 의 처 : 공군본부 정책홍보실 문화홍보과 대위 김제한 (☎ 02-506-6293, 6777)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공군